https://doi.org/10.38068/KJCL.103.11

‘일(翼)’의 해석

– 인류탄생신화의 한자고고학적 전석(詮釋)

河永三*

<목 차>

1. 들어가며
2. 일(翼)의 자형과 분석
   2.1. 일(翼)의 자형자료
   2.2. 일(翼)의 선행분석
   2.3. 일(翼)의 자형구조
3. 일(翼)의 창제의미
4. 일(翼)의 용례분석
5. 결론: 한자고고학적 전석

1. 들어가며

전국시대 초(楚)나라 계열 문자에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羽)와 능(能)의 상하결합으로 구성된 일(翼)은 그 형체 구조가 매우 분명함에도 이의 의미와 독음은 물론 창제 의미조차도 그간 잘 해독되지 않고 있는 글자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1993년 『곽점초간(郭店楚簡)』의 발굴과 1998년의 공표를 계기[1]로 해당 글자와 문헌용례와의 대조를 통해 이 글자가 ‘일(一)’과 대체될 수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8S1A6A3A02043693).
** 경성대 중국학과 교수, 한국한자연구소 소장, hayoungsam@gmail.com

1) 1993년 湖北省 荊門市 郭店 제1호 楚墓에서 발견되었는데, 기원전 4세기 중기에서 기원전 3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한다. 총 804枚(글자가 있는 죽간은 730枚)가 발굴되었으며, 정리를 거쳐 1998년 『郭店楚墓竹簡』(荊門市博物館編, 文物出版社)이 출간되었다. 내용은 先秦時期의 儒家와 道家 관련 문헌들로, 「緇衣」, 「魯穆公問子思」, 「窮達以時」, 「五行」, 「唐虞之道」, 「忠信之道」, 「成之聞之」, 「尊德義」, 「性自命出」, 「六德」, 「語叢」(4篇)(이상 유가

있는 '일(一)'자라는 사실에 대다수의 학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게 되어 그 연구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2)]

그럼에도 일(一)과 형체 상으로 전혀 다른 일(䨻)이 어떻게 해서 '일(一)'과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전의 학자들이 모두 일(䨻)의 일(一)의 가차자로 처리하였지만, 이는 일(䨻)의 창제의미를 해독하지 못한 결과이며, 그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의미의 관련성은 배제한 채 독음만 빌려왔다는 '가차'의 입장에서만 연구되었다고 생각한다.[3)] 해당 글자의 창제 의미를 자형 속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자의 특성상 해당 한자의 창제의도와 그 의미를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일(䨻)에 대한 창제의미 규명이 일(䨻)의 연구에 관건이 될 것이며 관련 연구를 새롭게 진전시킬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그간 논증되지 않았던 일(䨻)의 창제의미를 일(一)의 또 다른 필사형식인 일(壹)과 연계하여 '한자고고학'[4)]의 방법론을 응용하여 밝히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들이 갖는 문화적 상징을 파헤침으로써 일(䨻)에 대한 진일보한 해독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관련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고대한자에서 그간 출토된 일(䨻)자 자형 수집과 이에 대한 이전 학자들의 논의를 살피고, (2)일(壹)과의 연계 속에서 일(䨻)이 어떻게 일(一)과 의미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밝히며, (3)이렇게 분석된 창제의미가 글자구조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일(䨻)의 용

관련 문헌), 『老子』(갑, 을, 병편 3종), 「太一生水」(이상 도가 관련 문헌) 등 총 18편이 포함되었다.(바이두백과, 위키백과 '郭店楚簡', 2022.10.19.10:45 검색)

2) 蔡麗利(2010), 142쪽.

3) 䨻의 연구사와 평가에 대해서는 蔡麗利(2010)에서 잘 정리되었다. 141~144쪽 참조.

4) 河永三(2022)에서 '한자고고학'의 개념 정립과 이론 구축에 대해 시도한 바 있는데, '한자고고학'은 "한자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 그 배후의 말 없는 문화사를 발굴, 해석하는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한자를 대상으로, 특히 한자의 어원을 통해 이에 반영된 문화성을 밝히는 학문으로, 이의 증명에 언어문자학, 문헌학, 고고학, 인류학 등의 자료들이 동원될 수 있다.(21쪽) 즉 "한자의 형체와 의미 분석을 통해 이 배후에 든 문화의식의 해석을, 문헌학적 자료, 인류학적 자료, 고고학적 자료 등과 연계하여 상호 검증하고 논증함으로써 한자 부호에 남겨진 배후의 문화의식을 파헤치는 학문 영역을 '한자고고학'이라 이름 할 수 있다."(39쪽)

례 분석에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피며, (4)이러한 연구방식과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들이 다른 글자들로도 확장 가능한지의 이론적 확장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일(𦍒)의 자형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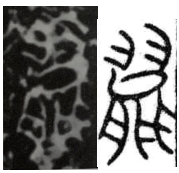
1.1. 일(𦍒)의 자형자료

일(𦍒)은 상나라 갑골문자에서 그 흔적을 보이고는 있지만[5], 전국시대의 금문과 죽간 문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전국시기의 금문 자료라 할 「중산왕착호(中山王𠷎壺)」와 「악군계절(鄂君啓節)」, 죽간 자료라 할 『곽점초간(郭店楚簡)』, 『상해박물관장전국초죽서(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이후 『상박초죽서』로 줄여 부름), 『청화대학소장전국죽간〔清華大學藏戰國竹簡〕』(이후 『청

5) 『小屯南地甲骨』(2169.2)에 "其在亩熊( )"라는 말이 보이는데, 徐中舒는 여기에 등장하는 을 熊으로 해석하고, "이 갑골 편은 모두 사냥에 관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熊은 여기서 원래의미 즉 짐승이름으로 쓰였다."라고 했다. 그러나 글자를 자세히 살피면, 다리와 앞발이 그려졌고, 등에는 날개(羽)가 그려진 것이 특징이어서 단순한 '곰'이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李實(1997: 224~225쪽)은 이 글자에 날개가 분명하게 그려져 있음에 주목하여, 우성오나 『類纂』의 해독은 잘못된 것이라 하면서, 이는 能과 羽의 상하구조로 「악군계절」에서의 과 같은 글자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글자는 𦍒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갑골문에서 이후의 용례처럼 一과 같은 𦍒로 쓰였다고 확정할 수는 없기에, 𦍒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였다. 徐中舒는 『갑골문고림』에서 이 글자의 다음에 (1887)을 수록하고서 이것도 웅(熊)으로 해석했는데, 날개가 빠졌을 뿐이다.(徐中舒, 『갑골문자고림』 제2책, 1837쪽) 유사한 예에 "其在盂叡澤, 吉?"(『小屯南地甲骨』 1141.5)도 있다. 물론 전혀 다른 해석도 있다. 劉雲(2010)의 경우 이를 곰으로 보지 않고 새의 일종인 가마우지(鵜)로 보았다. 발이 짐승 발처럼 된 것은 가마우지의 발이 물갈퀴로 되었기 때문이며, 등 쪽의 날개(羽)는 가마우지가 날 때 두 날개를 위로 한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하기도 했다.

www.kci.go.kr

화간』으로 줄여 부름) 등이 그것인데, 「중산왕착방호」 하나를 제외하면 모두 초나라 계열에 속하는 문자들이다. 이 때문에 일(𦍒)은 초나라의 지역성을 띠는 대표 글자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6] 지금까지 우선 수집된 이들의 자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의미 있는 유형 중심으로 선별 제시함).[7]

					
(좌)「噩君啓車節」(『殷周金文集成』, 121105) (우)『文物精華』 모사본[8]		(좌)「中山王𦍒方壺」(『殷周金文集成』, 9735) (우)『文物精華』 모사본		『新蔡・甲一』22號簡	『新蔡・甲一』22號簡
『郭店・成之聞之』18號簡	『郭店・太一生水』7號簡	「郭店太一生水』7號簡	「郭店・五行』16號簡	『郭店・語叢四』25號簡	『包山・卜筮祭禱』200號簡

6) 袁金平(2007), 85쪽.

7) 이외에도 𦍒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글자로 [illegible] (「史牆盤」)이 있다. 원문은 "弘魯卲(昭)王廣[illegible]楚刑(荊), 唯貫南行."으로 되었는데, 裘錫圭(1978)는 이를 笞로 해독하고(물론 당란은 貌로, 李學勤과 戴家祥은 能으로, 서중서는 '𦍒攴'으로 해독한 바 있다) 廣撻로 해석했다(27쪽). 그리하여 이를 유명한 소왕의 荊楚 정벌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보고, "복되고 훌륭하신 소왕께서는 형초 지역에 널리 덕을 펴시어 왕정을 남쪽으로까지 전파하셨네."라고 했다. [illegible]을 앞의 廣과 결합한 동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뒤의 荊楚와 관련된 수식어로 볼 것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글자가 能(곰)과 攴(몰아냄)으로 구성된 것은 '곰'의 후손을 자처하던 초나라의 특성과 관련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8) 『總集』 7899, 『文參』 1958年4期 7頁(2), 9頁 圖2, 『文物』 精華 第二集 16頁左, 50頁左, 『考古』 963年8期 版8右, 『甲骨文金文』 84.

www.kci.go.kr

『包山・卜筮祭禱』200號簡	『包山・卜筮祭禱』 200號簡	『包山・卜筮祭禱』203號簡	『包山・卜筮祭禱』203號簡	『包山・卜筮祭禱』205號簡	『包山・卜筮祭禱』206號簡

위의 자형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𦍒)로 예정(隷定)된 이 글자는 그 구조가 매우 분명하여, 예외 없이 우(羽)와 능(能)의 상하구조로 되었다. 다만 「중산왕착호」의 자형에 대해서는 서(鼠)와 일(一)의 결합인 일(𩰫)로 보는 등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9] 여전히 일(𦍒)로 해석하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10]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중산왕착방호」 자료까지 포함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일(𦍒)의 자형 분석을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우(羽)와 능(能)을 우선 살펴야 할 것이다. 『설문해자』(이후 『설문』으로 줄여 부름)에서는 이렇게 풀이했다.

우(羽): 羽: 새의 긴 깃털을 말한다. 상형이다.(鳥長毛也. 象形.)[11](제4권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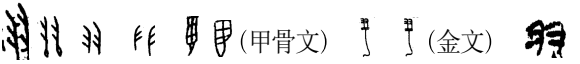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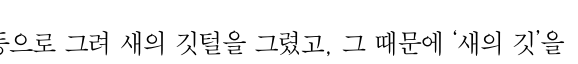
(https://bronze.asdc.sinica.edu.tw/rubbing.php?12110)

9) 예를 들어 戴家祥은 이를 '從鼠從一'의 𩰫로 해석하여 앞에 든 것이 能이 아니라 鼠라고 했다.(劉志基(2013), 제1권, 5쪽.) 그것은 鼠가 12띠에서 처음을 상징하는 동물이기에 一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런가 하면 劉雲(2010)은 글자의 왼쪽 부분은 쥐(鼠)가 아니라 새(鳥)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는 鳥로 보아야 이는 鳦의 또 다른 필사법이며 의미는 一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10) 예컨대, 董蓮池(『新金文編』, 作家出版社, 2011)와 劉志基 등이 그렇다. 또 『清華簡』의 (伍)0208, (捌)0217: 鼠-(一) 邦道12 '一之則亡弐心'; (玖)0250 治政19 治政21 등도 그렇다. 특히 (玖)0250의 자형은 一 대신 乙이 들었는데, 독음이 같은 글자의 통용자로 보인다. 또 劉洪濤(2010)는 『上博楚竹書』(四) 「柬大王泊旱」 5號簡의 "吾瘵"와 "病" 사이에 놓인 을 '鼠-'이라 해석하고 이를 '一'로 읽었다.(84~85쪽)

11) 『단주』에서는 이렇게 보충했다. "(羽) 鳥長毛也. 長毛・別於毛之細縟者. 引伸爲五音之羽. 晉書樂志云. 羽・舒也. 陽氣將復. 萬物孳育而舒生. 漢志曰. 羽・宇也. 物聚臧宇覆之. 爾雅. 羽謂之栉. 象形. 長毛必有耦. 故竝𠬝. 乀部曰. 𠬝新生羽而飛也. 羽, 竝𠬝也. 王矩切. 五部. 凡羽之屬皆从羽."

능(能): : 곰의 부류에 속한다. 발은 사슴을 닮았다. 육(肉)이 의미부이고 이(目)가 소리부이다. 곰(能)은 힘센 짐승의 하나이다. 그래서 현능(賢能)이라는 뜻이 생겼다. 또 강장(彊壯: 굳세고 씩씩함)하기 때문에 능걸(能傑: 뛰어난 사람)을 칭하게 되었다.(熊屬. 足似鹿. 从肉目聲. 能獸堅中, 故稱賢能: 而彊壯, 稱能傑也.)(제10권 상)

우(羽)는 고문자에서  (甲骨文) (金文)  (簡牘文)[12] 등으로 그려 새의 깃털을 그렸고, 그 때문에 '새의 깃'을 뜻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통일되었다. 문제는 능(能)인데, 능(能)의 구조가 『설문』의 해설처럼 "육(肉)이 의미부이고 이(目)가 소리부"인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의문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현행본 『설문』의 최초 정리자라 할 서현(徐鉉, 916~991)조차도 일찍이 이에 대해 "이(目)는 소리부가 아닙니다. 아마도 전체를 상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臣鉉等曰: 目非聲. 疑皆象形.)"라고 하면서 전체를 상형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능(能)의 구조에 대해 당나라 말부터 이미 논란이 있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후 『설문』 최고의 연구자라 불리는 청나라 때의 단옥재(段玉裁, 1735~1815)도 이에 대해 상세히 변증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13] 먼저, "곰의 부류에 속한다(熊屬)."라고 한 것은 '세 발 자라(三足鼈)를 능(能)이라 한다.'라고 한 당시의 『이아』에 대한 구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4] 단옥재는 이러한 『설

12) 이상의 자형은 河永三(2014)에 근거했으며(이하 마찬가지), 이는 화동사범대학 '중국문자연구와 응용센터'의 고문자자형 데이트베이스에 근거한 것이다. 보다 상세한 자형은 최근 출간된 臧克和・劉本才(2020)의 자형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거기서는 갑골문, 금문, 전국문자, 『설문해자』의 자형자료를 비롯해 수당대 석각문까지의 다양한 출토문헌 자형을 제공하고 있다.

13) "能: 熊屬. 『左傳』・『國語』皆云晉侯夢黃能入於寢門. 韋注曰: 能似熊. 凡左傳・國語能作熊者, 皆淺人所改也. 足侶鹿. 故皆从比也. 龟足・彘足亦同. 从肉, 猶龍之从肉也. 目聲. 奴登切, 古者在一部, 由之而入於咍則爲奴來切, 由一部而入於六部則爲奴登切, 其義則一也. 能獸堅中, 故偁賢能. 賢, 古文作臤. 臤, 堅也. 而彊壯, 偁能傑也. 此四句發明叚借之恉. 賢能, 能傑之義行而本義幾廢矣. 子下曰: 十一月陽氣動. 萬物滋, 人以爲偁. 亦此例也. 韋朋來西烏五篆下說解皆此例. 凡能之屬皆从能."(『說文解字注』)

14) "鼈三足, 能; 龜三足, 賁."(『爾雅・釋魚』) 『이아』에서 말한 '세 발 자라'는 『설문』에서 말한

문』의 해설에 대해, "『좌전』과 『국어』에서 모두 '진(晉)나라의 제후가 누른 곰이 침실 문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라고 했다. 위소(韋昭, 201~273)의 주석에서 능(能)은 웅(熊)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다. 『좌전』과 『국어』에서 웅(熊)이라 적었는데, 이는 천박한 이들이 고친 결과이다."라고 하여 능(能)과 웅(熊)이 같은 글자긴 하지만 능(能)을 웅(熊)으로 적은 『좌전』과 『국어』는 잘못이라 여겼다.

능(能)의 자형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변증했는데, 『설문』에서 "발(足)은 사슴(鹿)을 닮았다"고 한 것에 대해, 발이 사슴을 닮았기에 "비(比)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착(𠂤: 짐승이름)의 발이나 돼지(彘)의 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다.[15] 또 "육(肉)으로 구성되었다"고 한 것에 대해, "이는 용(龍)자가 육(肉)으로 구성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라고 했다. 또 능(能)의 독음에 대해서는, "이(㠯)가 소리부이다"라고 했는데, "(독음은) 노(奴)와 등(登)의 반절로, 상고음에서는 제1부에 속했다. 지(之)부에서 해(咍)부로 들어가면 (독음이) 노(奴)와 래(來)의 반절이 되고, 제1부에서 제6부로 들어가게 되면 노(奴)와 등(登)의 반절이 되는데, 글자의 의미는 같다."라고 했다.[16]

나아가 그는 능(能)의 확장 의미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즉 "곰(能)은 힘센 짐승의 하나이다. 그래서 현능(賢能)이라는 뜻이 생겼다."라고 한 『설문』의 해설에 대해, "현(賢)을 고문체에서는 간(臤)이라 적었고, 간(臤)은 단단하다는 뜻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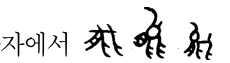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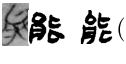
'곰'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산해경』에 나오는 특이한 자라에 대한 언급이다. 郭璞은 이에 대해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山海經』曰: 從山多三足鼈, 大若山多三足龜, 今吳興郡陽羨縣君山上有池, 池中出三足鼈. 又有六眼龜." 또 邢昺은 이에 대해 다시 이렇게 보충했다. "案: 『中山經』云: 游戲山東南二十里曰從山, 從水出其上潛其下, 其中多三足鼈, 食之無蟲疾, 是從山多三足鼈也. 又云放皐山東五十七里曰大苦, 山陽狂水出焉, 西南注伊水中多三足龜, 食者無大疾, 可以巳腫, 是大苦山多三足龜也. 云吳興郡以下者以時驗而言也."

15) 동물은 굽의 갈라진 숫자에 따라 짝수면 偶蹄類(멧돼지・돼지・하마・낙타・사슴・기린・양・염소・물소・소 등을 포함하여 약 220여 종이 알려져 있다), 홀수면 奇蹄類(말・얼룩말・당나귀・맥・코뿔소를 비롯한 18종이 알려져 있다)라 구분한다. 다만 수생 고래류(고래, 돌고래, 쇠 돌고래)는 우제류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에 현재 분류학에서는 우제류와 고래류를 결합하여 경우제류(鯨偶蹄類)로 분류한다.(위키 백과) 그렇게 본다면 能이나 熊의 발가락이 사슴을 닮았고, 사슴처럼의 偶蹄類는 발을 比로 형상했다는 말인데, 고대 자형에서도 두 쪽이 나란히 그려진 것으로 보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6) 이는 『廣韻』에서 두 가지 독음을 제시한 것에 대한 해설이다. 『廣韻』에서는 能의 독음을 '奴來切'과 '奴登切'로 제시했다.

다(堅也)."라고 했다. 그리고 『설문』에서 "강장(彊壯: 굳세고 씩씩함)하기 때문에 능걸(能傑: 뛰어난 사람)을 칭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4구(能獸堅中, 故偁賢能. 而彊壯, 偁能傑也.)는 가차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 현능(賢能)이나 능걸(能傑)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자 원래의 뜻(곰)은 사라지고 말았다. (『설문』) 자(子)자의 설명에서, '11월을 상징한다. 이때는 양기가 움직이며, 만물이 불어나는 때이다. 이 때문에 아이의 모습을 그린 자(子)를 빌려 이때를 지칭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예이다. 위(韋), 붕(朋), 래(來), 서(西), 오(烏)자도 모두 이러한 예에 속한다."[17]

이렇듯, 단옥재는 글자의 구조, 글자의 독음, 글자의 의미 확장 등에 대해 『설문』의 해설을 매우 자세하게 보충했다. 그러나 그가 말했던 것처럼 "이(㠯)가 능(能)의 소리부"인지는 여전히 의심이 간다. 왜냐하면 고대 자형에 근거해 볼 때 이는 '곰의 머리'를 형상한 것으로, 곰의 몸체에서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서현(徐鉉)의 지적처럼 글자 전체를 상형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다만 단옥재의 해설은 소전체에 근거한 것인데, 能이 소전체에 들면서 몸체에서 분리되어 소리부인 이(㠯)로 분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때, 능(能)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고문자에서  (金文)  (簡牘文) (說文小篆) 등으로 써, 원래는 곰의 모습을 그렸는데, 지금은 자형이 많이 변했다. 지금의 자형을 구성하는 사(厶)는 곰의 머리를, 육(月=肉)은 몸통을, 두 개의 비(匕)는 다리를 말한다. 곰은 몸집에 걸맞지 않게 나무를 잘 타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으며, 특히 불곰은

17) 能의 "人㠯爲偁"에 대한 주석에서 段玉裁는 이렇게 보충했다. "이는 朋을 朋攜의 朋으로 쓰고, 韋를 皮韋의 韋로 쓰고, 烏를 烏呼의 烏로 쓰고, 來를 行來의 來로 쓰고, 西를 東西의 西로 쓴 것과 같은 예들이다. '~을 ~로 쓰고'라고 한 것은 허신이 발명한 육서 중 가차에 속한다. 子는 원래 气가 움직이고 萬物이 불어나는 것을 지칭하던 글자인데, 萬物이 사람에게는 영향하지 못하는바, 그 때문에 이를 빌려와 사람의 호칭으로 썼던 것이다.(此與以朋爲朋攜, 以韋爲皮韋, 以烏爲烏呼, 以來爲行來, 以西爲東西一例. 凡言以爲者, 皆許君發明六書叚借之法. 子本陽气動萬物滋之偁, 萬物莫靈於人, 故因叚借以爲人之偁.)" 또 "이러한 가차의미가 유행하게 되면서 원래 의미는 사라지고 말았다."고도 했다.

사나워 호랑이도 범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래서 곰의 이러한 가공할 만한 힘과 용맹스러움 때문에 '곰'에 능력(能力)과 재능(才能)이라는 뜻이 생겼으며, 능하다, 가능(可能)하다는 뜻으로도 쓰였다. 그러자 원래 뜻인 '곰'을 나타낼 때에는 소리부인 염(炎)의 생략된 모습인 화(火)를 더해 웅(熊)을 만들어 분화했다."[18] 다만 화(火)는 대(大)의 와변으로 보기도 한다.[19] 특히 『설문』에서는 동면하는 곰의 특성에 주목했는데[20], 긴 겨울잠에 들고 봄이면 다시 깨어나는 모습에서 '부활'을 연상했을 것이고 이는 불사(不死)의 상징이라는 점에서[21], 곰의 이러한 '능력'을 매우 신비하게 여겨 '재능'이라는 뜻이 나왔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곰은 중국에서 우(禹)임금의 아버지인 곤(鯀)의 화신으로 여겨져[22], 춘추전국시대 당시 이미 곰에 대한 상당한 신성성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2. 일(䍃)의 선행분석

능(能)과 우(羽)로 구성된 일(䍃)의 구조에 대해 그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채려리(蔡麗利)(2010)의 연구사 개술에 의하면, 일(䍃)에 대한 고석의 성과는 『곽점초간』의 발견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는데, 이는 『곽점초간』이 발견되면서 문헌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일(䍃)이 일(一)과 같은 글자임을 기본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23] 이후 일(䍃)을 일(一)로 보는 것에는 의견 통일이 이루어져 왔다.

사실, 『곽점초간』이 세상에 공표되기 전에는 일(䍃)의 용례를 기존의 문헌자

---

18) 河永三(2014), '能'의 해석.
19) 季旭昇(2002), 『說文新證』(하), 107쪽.
20) "䏍: 獸似豕, 山居, 冬蟄. 从能, 炎省聲."(『설문』 熊의 해설)
21) 葉舒憲(2018), 105~106쪽.
22) 『國語・晉語(八)』에 平公이 꿈에서 黃熊이 나타나는 꿈을 꾼 것에 대해 子産이 해몽을 해준 과정에 "昔者鯀違帝命, 殛之於羽山, 化爲黃能以入於羽淵."이라는 언급이 보인다. 또 『左傳』(昭公七年)에도 "昔堯殛鯀於羽山, 其神化爲黃能以入於羽淵."라고 하였다. 鯀이 죽자 羽山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의 혼령이 黃能(누런 곰)으로 변해 羽淵에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23) 蔡麗利(2010), 142쪽.

www.kci.go.kr

료와 대조하기가 어려워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고, 그 결과 여러 다양한 해석이 등장했었다. 예컨대, 은척비(殷滌非)・나장명(羅長銘)(1958: 8)은 일(翼)을 '취(𦍒)로 예정(隷定)하고 이를 '세취(歲𦍒)'를 뜻하는 연면어로 보고서 세모(歲暮)의 의미로 보았는가 하면, 우성오(于省吾)(1963: 444)는 이를 '영(盈)'으로 보고 영(贏)이나 영(嬴)과 통용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이를 일(翼)로 예정했던 학자들 사이에서도 구체적 해설은 많이 갈렸는데, 곽말약(郭沫若)(1958: 3)은 이를 능(能)으로 읽고 '태(態)'의 의미로 보았으며, 하림의(何琳儀, 1998: 77)도 능(能)으로 읽었으나 벌레이름으로 보았다. 주덕희(朱德熙)・이가호(李家浩)(1989: 61)는 이를 대(代)로 읽었으며, 포산간정리자(包山簡整理者)(1991: 53)는 사(嗣)로 읽었으며, 이령(李零)(1993: 425)은 익(翌)으로 읽었으며, 오욱방(吳郁芳)(1996: 76)은 파(罷)로 읽었으며, 공중온(孔仲溫)(1997: 579)은 웅(熊)으로 읽었으며, 서재국(徐在國)(1998: 79)은 사(祀)로 읽었다. 그런가 하면 안세현(顏世鉉)(2000: 104~105)은 심지어 우(羽)와 능(能)을 모두 소리부로 보기도 했다.[24]

이전 학자들의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있듯, 초기의 취(𦍒)나 영(盈)으로 예정하던 것에서 점차 일(翼)로 옮겨감으로써 글자 형체에 대한 논의는 통일되어 가긴 했으나, 일(翼)의 구조 분석이나 의미 추정 및 독음에 대에서는 여전히 학자들 간에 차이가 매우 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1998년 5월 『곽점초간』이 공표를 기점으로 일(翼)에 대한 인식은 질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곽점초간』에서 유가와 도가 관련 문헌이 대거 출현함으로써 이들 용례를 이후의 전래 문헌과 대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翼)로 예정하고, 일(翼)이 일(一)과 같은 글자로 쓰였

24) 羽와 能을 모두 소리부로 보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자에서 두 가지 구성성분이 모두 소리부로 쓰이는 경우는 둘 모두 독음이 같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그래도 어느 일방은 의미부가 되어야 한다), 이후의 문헌에서 보이는 일부 合音字, 즉 불경 번역이나 근대시기 서구어의 번역 과정에서 해당 독음을 전사하기 위해 사용한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 『설문』의 예에서만 보아도 두 가지 성분이 모두 소리부로 쓰인 경우는 없다. 그렇게 볼 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특히 상고시대 한자에서는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www.kci.go.kr

음에 의견이 통일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나 왜 일(翼)을 일(一)로 읽어야 하는지, 왜 일(翼)이 일(一)과 같이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은 여전히 큰 문제였다. 그 결과 그들 간의 의미적 연관성, 즉 창제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연구자들은 하나 같이 일(翼)과 일(一)의 의미적인 연관성을 배제한 채 독음 상으로만 일(一)과 연결시키게 되었고, 그 바람에 또다시 매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들은 일(翼)의 창제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들은 대부분 일(翼)을 구성하는 우(羽)나 능(能)중 하나를 소리부로 가정하였고, 이들의 독음을 일(一)과 연계시켜 관련성을 논증하고자 했다. 예컨대, 이천홍(李天虹)(2000: 94)은 일(翼)을 구성하는 우(羽)가 혜(慧)와 같다고 보고서, 혜(慧)와 일(一)이 상고음에서 같이 읽혔다는 점으로 이를 논증했다. 그런가 하면 하림의(何琳儀)(2003: 301)는 일(一)과 같은 글자인 일(壹)을 가져와 논증했는데, 호(壺)를 일(壹)의 소리부로 볼 수 있으며, 일(壹)의 소리부인 호(壺)가 일(翼)의 소리부인 우(羽)와 통용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25] 또 안세현(顔世鉉)(2000: 94)은 일(翼)이 갑골문의 익(翌)자를 계승한 글자라 보고, 익(翌)과 일(一)을 독음 상으로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심지어 정위(鄭偉)(2007: 378)는 이들 자료의 출토 지역이 고대 초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고대 초 방언과 동타이(侗台)어와의 비교를 통해 일(一)과의 연계성을 찾고자 하기도 했다.[26] 그런

25) 郭錫良(1986)에 의하면, 壹의 상고음은 성모가 影이고 운부가 質로 /ʔĕt/으로 재구되며(중고음은『광운』에서 於悉切인데, 影質開三入臻이다)(63쪽), 壺는 성모가 匣이고 운부가 魚로 /ɣɑ/로 재구된다(중고음은『광운』에서 戶吳切인데, 匣模合一平遇이다).(94쪽) 이들은 성모가 影과 匣인데, 이들은 모두 후음으로, 상고음에서 후음계열인 '影・曉・匣・喻'의 독음이 비슷하였고, 운부의 경우 質과 魚는 陰入旁對轉에 해당하여 서로 통용가능하다. 이는 아래에서 논의할 壹과 羽의 관계와 일치한다. 이에 비해 吉의 상고음은 성모가 見이고 운부가 質로 /kĭĕt/으로 재구되어(중고음은 『광운』에서 居質切인데, 見質開三入臻이다)(69쪽), 성모의 경우 影과 見은 후음과 아음으로 서로 통용가능하고 운부는 質로 같다. 그렇게 보면 壺보다는 吉을 소리부로 보는 것이 옳다. 만약 壺를 소리부로 본다면 吉을 의미부로 보아야 하는데, 吉은『설문』에서 부수로 설정되지도 않았으며(口부수에 귀속), 그 자체로도 합성자여서 의미부로 보기는 어렵다. 또『설문』에서 壹이 壺부수에 다음에 연속되는 부수자로 설정되었고, 또 연속 배열된 壺壹・壹・懿 등의 관계로 볼 때 壺는 壹의 의미부이며, 소리부를 壺라기 보다는 吉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26) 그는 그간의 학자들이 翼의 정체를 찾지 못하였던 것은 한어로 된 문헌에서만 그 내원을

가 하면 송화강(宋華强)(2006)은 일(䨻)을 아예 증(蒸)자라고 하면서 증(蒸)과 일(一) 간의 독음상의 연계성을 찾고자 했다.[27] 그런가 하면 계욱승(季旭昇)은 이전의 주요 논의를 정리한 후 "일(䨻)의 본래의미는 아마도 숫자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초나라 문자에서는 숫자 '일'로 쓰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일(一)' 자에다 포함시켰다."[28]라고 하여, 일(䨻)을 일(一)자로 보았지만 숫자 '일'이 그 본래의미는 아니라고도 했다.

이렇듯 일(䨻)을 일(一)과 연결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들이 제시한 결과는 그 어느 하나도 만족하기 어려운 결론이라 생각한다. 그것은『곽점초간』의 출현으로 일(䨻)이 일(一)과 동일한 글자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일(䨻)의 창제원리에 대한 전석이 시도되지도 않았고, 그 결과 독음상의 연계에서만 관련성을 찾고자 했던 것에 기인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이 같을 때 그 가정과 논증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 이론을 상기시키듯, 이들은 핵심 근거와 상식적인 접근법을 제쳐둔 채 멀리 돌아 다양한 이유와 특이한 근거를 찾으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한자는 자형 속에 의미를 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자체계의 하나이다. 그래서 고대 한자의 고증에서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이 해당 글자의 의미 창제원리이고, 동일하게 사용된 글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미간의 연계성 즉 이체관계의 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해당 글자의 창제원리가 해독되고, 그들 간의 의미적 관계가 해결되면, 독음상의 연계는 자연히 해결된다. 전자의 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때 하는 수 없이 의미와 관계없이 빌려 쓴 가차관계로 설명을 하게 되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䨻)의 창제원리는 무엇이고, 또 일(一)과의 의미적 연관성은 어

찾으려 했던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는 진정한 초나라 방언으로서, 䨻은 고대 侗台語의 '一'의 표음자라고 보았으며, 당시의 侗台語와 楚語는 楚 방언 계열에 속했다고 했다. 나아가 오늘날 龍州壯語에서 〔nəːŋ^{6}〕;〔nəŋ^{1}〕, 泰語에서 〔nɯŋ〕, 版納傣語에서 〔nɯŋ〕, 德宏傣語에서 〔ləːŋ^{6}〕(〈*n-) 등으로 재구되는데, 䨻의 소리부로 쓰인 能은 상고음에서 泥母蒸部에 속하는 글자로 〔*nɯŋ〕으로 재구되어 侗台語의 '一'자와 독음이 일치한다고 했다.(379쪽)

27) 이상에 인용한 선인들의 해독 과정에 대한 설명은 蔡麗利(2010)의 설명을 요약함. 상세한 것은 142~143쪽 참조.

28) 季旭昇(2002),『說文新證』, 30쪽.

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필자는 그간 일(一)의 또 다른 필사법으로 전국시기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일(壹)에 대해[29], 그것의 창제원리와 일(一)과의 관계 및 그에 반영된 문화적 상징에 대해 천착해 왔다.[30] 만약 일(䨻)이 일(一)과 의미가 같은 이체 관계라면, 일(䨻)도 일(壹)과 같은 글자가 되며, 그렇게 되면 일(壹)이 가진 문화적 상징이 일(䨻)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일(䨻)의 창제원리와 그것이 일(一)과 동일하게 쓰이게 된 근본적 이유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그간 선행 연구자들의 관련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일(䨻)의 자형구조를 확정하고, 일(壹)과 일(䨻)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지향하는 고대사회의 숭배의식과 토템 및 민족생성 배경 연구 등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한자고고학'의 구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3. 일(䨻)의 구조분석

일(䨻)의 구조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①'從能羽(彗)聲', ②'從能羽聲', ③'從能從羽', ④'從羽能聲', ⑤'羽와 能이 모두 소리부'라는 설 등이 있어왔다.[31] 이처럼 이전의 연구에서는 능(能)에 우(羽)가 더해져 만들어진 일(䨻)을 모두 형성구조로 보고 있다.[32] 다만 구체적 내용에서는 우(羽)를 소리부

29) 예컨대 전국시대 초나라 계통 문자로 전국 중후기(기원전 305±30년)(바이두백과)의 것으로 추정되는 『清華大學藏戰國竹簡(柒)』에 (「越公其事」 19 "壹式子弟") 등이 보인다. 또 진나라 계통 문자 중 진시황의 문자 통일 시대의 것으로 (始皇詔版 1) (始皇詔 16斤 銅權 2), (始皇詔 銅權 10) 등이 보이는데, 이들은 壺를 (「秦封宗邑瓦書」), (『詛楚文・巫咸』), (「秦綱玉版・甲」), (『睡虎地秦簡・日書甲』 59背)로써 壹을 대신하고 있던 모습에서 벗어나 『설문』의 설명처럼 壺 속에 吉이 분명히 든 모습이다.

30) 河永三(2011), 河永三(2021), 河永三(2022) 등을 참조.

31) 상세한 내용은 蔡麗利(2010), 142~143쪽 참조.

32) 다만 ⑤의 경우, 한자에서는 합음자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데, 합음자는 중국어에

www.kci.go.kr

로 볼 것인가, 능(能)을 소리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둘 모두를 소리부로 볼 것인가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앞서 살핀 것처럼, 일(壹)은 일(一)과 동일한 의미로 쓰였고, 일(一)과 구분되는 특수한 함의, 즉 '호리병박에서 탄생한 인류'의 탄생신화를 표상하기 위해 이후에 따로 만든 글자로 추정할 수 있다. 만약 이 가설이 성립한다면 일(壹)과 같이 쓰인 일(䍃)도 특수한 함의, 즉 '곰에서 탄생한 인류'를 표상하기 위해 '곰'을 뜻하는 능(能, 熊의 원래 글자)에서 분화한 글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속성을 구조 분석에 반영해야만 할 것이다.

한자에서 형성자가 생성되는 경로를 보면, ①원래의 표의자에 소리부가 더해진 경우(厈, 鷄, 裘 등), ②표의자 자형의 일부를 소리부로 변화시킨 경우(囿, 何, 弦 등), ③기존의 글자에 의미부를 더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③의 경우는 다시 a.가차의를 구별하기 위해 의미부를 더한 경우(師-獅), b.파생의미를 구별하기 위해 의미부를 더한 경우(取-娶), c.본래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의미부를 더한 경우(爰-援, 喿-噪, 韭-韮, 須-鬚, 北-背, 它-蛇 등)로 구분된다.[33]

①c의 경우, 새로 생겨난 글자에 의해 의미의 변화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변화가 없을 경우(본래의 글자와 의미가 같음)를 누증자(累增字)(예를 들어 爰-援, 喿-噪, 韭-韮 등)라 하고, 변화가 있을 경우(본래의 글자와 의미가 다름)를 분별자(分別字)(예를 들어 須-鬚, 北-背, 它-蛇 등)라고 부른다.[34] 분별자(分別字)

존재하지 않는 독음을 표기하기 위해 두 요소를 독음적 속성으로만 합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불경번역과정에서 출현한 '먕'〔名養〕, '쟈'〔亭夜〕, 방언을 표기한 글자인 〔勿要〕나 〔勿曾〕, 근대이후 원소기호를 표시하기 위한 羥(qiǎng, 히드록실기), 羰(tāng, 카르보닐) 등이 있다. 물론 裘錫圭(2013)는 일반 한자에서 矧, 羑, 眇도 합음자로 보았으나(112쪽) 이를 합음자로 볼 것인지, 引, 久, 少가 소리부인 형성자로 볼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설문』에서 말한 亦聲은 형성구조로 보아야 할 것이다.

33) 裘錫圭(2013), 150~151쪽 참조.

34) 累增字와 分別字의 개념은 王筠에 의해 창안된 개념으로, 다음을 참조하면 된다. "편방이 더해지지 않아도 의미가 이미 충분한 글자의 경우, 그 편방은 후대 사람들이 더한 것이다. 이처럼 편방이 더해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분별문'이라 한다. 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래의미가 가차의미에 빼앗겨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편방을 더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원래글자의 의미가 여럿 있기에 편방을 더해 그 중 하나의 의미만을 따로 구분해 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편방을 더했으나 여전히 의미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것을 '누증자'라고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대의 의미가 심히 왜곡되어 편방을

의 경우, 보통 이후에 분화된 글자(후기자)에 의해 원래의 의미가 표현되고 원래의 글자는 더 이상 원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된다. 예컨대, '수(須)-수(鬚)'에서 수(須)는 더 이상 '수염'이 아닌 '반드시'라는 뜻으로, '북(北)-배(背)'에서 배(北)는 더 이상 '등'이 아닌 '북쪽'이라는 뜻으로, '타(它)-사(蛇)'에서 타(它)는 더 이상 '뱀'이 아닌 '그것(지시대명사)'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일(翼)의 경우도 '곰'을 뜻하는 능(能)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우(羽)를 더해 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앞에서 말한 분별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35] 즉 능(能)에서 우(羽)를 더해 분화한 일(翼)이 '일(一)'(인류 탄생)이나 '일(壹)'(호리병에서 탄생한 인류)과 같이 쓰여 '곰에서 탄생한 인류'라는 새로운 특수 의미를 표상하게 되었고, 일(翼)로 분화한 뒤 원래 글자인 능(能)은 원래의 '곰'이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고 '능력'의 의미나 '가능조동사'로 쓰였다는 점이 이를 반증해 준다.[36]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능(能)이 소리부인가, 우(羽)가 소리부인가, 아니면 둘 다 소리부인가 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우(羽)와 능(能)과 일(一)의 독음적 관계를 살펴보자. 상고음의 재구에는 학자마다 의견의 차이가 많지만, 칼그렌(Karlgren), 왕력(王力), 이방계(李方桂), 박스터-사가르트(Baxter-Sagart)의 재구음을 대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더해 드러나게 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이미 편방을 더해 분화했기에 이전의 글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이고, 셋째는 이미 편방을 더해 분화했으나 그 글자는 사용되지 않고 도리어 이전의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허신은 이러한 글자를 풀이할 때는 반드시 그 문자를 구분해 두었다.(字有不須偏旁而義已足者, 則其偏旁爲後人遞加也. 其加偏旁而義遂異者, 是爲分別文, 其種有二. 一則正義爲借義所奪, 因加偏旁以別之者也. 一則本字義多, 既加偏旁, 則祗分其一義也. 其加偏旁而義仍不異者, 是謂累增字, 其種有三. 一則古義深曲, 加偏旁以表之者也, 一則既加偏旁, 卽置古文不用者也, 一則既加偏旁而世仍不用, 所行用者反是古文也. 凡類此者, 許君說解, 必殊別其文.)"(王筠, 『說文釋例』 卷八, 一)

35) 물론 형성구조가 아닌 회의구조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자의 발전 규칙상 기존의 상형, 지사, 회의구조에서 형상구조로 발전하는 것이 한자체계변화의 일반적 규칙이고, 의미부라 하더라고 소리부를 겸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형체이기 때문에 회의구조보다는 형성구조일 가능성이 높다.

36) 물론 能에서 분화한 熊이나 罷 등도 또 다른 분별자로서의 관계를 가진다.

글자	상고음 중고음	재구음			
		Karlgren	王力	李方桂	Baxter-Sagart
一壹	(古)影質	ʔi̯ĕt	ĭet	·jit	“一” ʔjit “壹” *ʔit {*〔ʔ〕i〔t〕}
	(廣)於悉切, 影質開三入臻	ʔi̯ĕt	ĭĕt	·jiĕt	ʔjit
羽	(古)匣魚	ɣi̯wo	ɣĭwa	gwjagx	*ɢʷaʔ {*〔ɢ〕ʷ(r)aʔ}
	(廣)王矩切, 云虞合三上遇 王遇切, 云遇合三去遇	ji̯u	ɣĭu	ju	hjuX
能	(古)泥之 泥蒸	nəŋ	nə nəŋ	nəg nəŋ	*nˤə *nˤə {*nˤə(ŋ)} *nˤə {*nˤə(ʔ)} ~ *nˤəŋ
	(廣)奴來切, 泥咍開一平蟹 奴登切, 泥登開一平曾 奴等切, 泥等開一上曾 奴代切, 泥代開一去蟹	nəŋ	nɒi nəŋ nəŋ nɒi	nậi nəŋ nəŋ nậi	noj noŋ
一, 壹, 羽, 能의 재구음[37]					

왕력(王力)의 재구음에서 볼 수 있듯, 일(一)이나 일(壹)의 상고음은 성모가 영(影)이고 운부가 질(質)로 /ĭet/으로 재구된다. 그래서 성모가 니(泥)이고 운부가 지(之)로 /nəŋ/로 재구되는 능(能)이나, 성모가 갑(匣)이고 운부가 어(魚)로 /ɣĭwa/로 재구되는 우(羽)는 모두 일(一)과 직접 대전(對轉)이나 방전(旁轉)의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둘 모두 운복이 비슷하고 운미가 다른 운부 간에 통용되어 방대전(旁對轉)의 관계로는 볼 수 있다.[38]

특히 능(能)의 경우, 왕지평(王志平)의 연구에 의하면, 상고음에서 능(能)의 운모가 지(之)이고 일(一)의 운모가 질(質)인데, 이들은 『시경』의 압운자료, 지

37) Karlgren, 王力, 李方桂의 上古音과 切韻音의 재구음은 ‘漢字古今音資料庫’와 ‘東方語言學’을, Baxter-Sagart의 재구음은 Appendix: Baxter-Sagart Old Chinese reconstruction을 참고함.

38) 對轉은 운복이 동일한 陰聲, 陽聲, 入聲 간에 통용되는 것을 말하고, 旁轉은 운복이 비슷하고 운미가 동일한 운부 간에 통용되는 것을 말하며, 旁對轉은 운복이 비슷하고 운미가 다른 운부 간에 통용되는 것을 말하고, 通轉은 운복이 동일하고 운미의 발음부위가 다른 운부 간에 통용되는 것을 말한다. 對轉, 旁轉, 旁對轉, 通轉을 合韻 혹은 通韻이라고도 불렀다. 이는 청나라 성운학자들의 성취로 평가된다. 顧炎武는 고음을 10부, 戴震은 9류25부, 段玉裁는 17부, 孔廣森은 18부, 朱駿聲은 28부 등으로 나누는 등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다.’

(之)〔職〕부와 지(脂)부〔質〕 간의 해성관계에서 /-t/와 /-k/ 간의 혼용 등이 다양하게 확인되어 능(能)이 일(翼)의 소리부일 가능성이 높으며, 전통 문헌에서의 통가 자료를 통해 볼 때도 이들 운부 간의 통용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39) 또 성모의 경우도, 능(能)의 성모인 니(泥)와 일(一)의 성모인 영(影)은 자주 통용된다. 특히 『설문』에서 말한 것처럼 능(能)의 소리부를 이(以)로 보게 되면 영(影)모와 이(以)모는 더욱 가까워진다. 이들은 통가자들뿐 아니라 해성자(諧聲字), 성훈(聲訓) 자료, 이독자(異讀字) 등에서도 서로 통용 가능한 것으로 등장한다.40) 따라서 전통적으로 다소 거리가 있게 보였던 일(一)과 능(能)의 독음은 한어사뿐만 아니라 한 장어(漢藏語, Sino-Tibetan languages)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이들의 상고음이 매우 밀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41)

그렇게 볼 때 상고음에서 우(羽)와 능(能) 모두 일(翼)의 소리부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상의 왕지평(王志平)의 상세한 논증은 물론 형성자의 파생과정, 특히 분별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능(能)이 일(翼)의 소리부일 가능성이 크다 보인다.42)

이렇게 볼 때, 일(翼)은 의미나 독음, 그리고 한자구조의 발전 규칙에 근거해

---

39) 예컨대, 『시경・빈풍・鴟鴞』에서 子(之部)와 室(質部)의 압운, 해성자에서 質部의 乙과 職部의 肊, 職部의 陟과 質部의 騭의 관계처럼 /-t/ 운미와 /-k/ 운미의 교환(이는 閩南語나 客家語에서도 자주 보이는 현상임), 『논어・學而』 "求之歟? 抑與之歟?"의 抑(影母質部)을 『석경논어』에서는 意(影母職部)로 가차 표기하는 등 다양한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상세한 것은 王志平(2008) 394~396쪽 참조.

40) 예컨대, 『예기・악기』의 "獶雜子女"의 獶(泥母幽部)를 『예기주』에서 優(影母幽部)로 통가하였는가 하면, 『설문』의 해성자에서 餧・諉・鋮(泥母微部) 등의 소리부가 委(影母幽部)로 된 것, 王引之의 『경전석사』에서 '一'(影母幽部)을 '乃'(泥母幽部)로 풀이한 聲訓자료, 湊나 餒나 嬈자 등의 이독자 자료 등을 그 증거로 들 수 있다고 했다. 王志平(2008) 396~397쪽 참조.

41) 王志平(2008), 398쪽.

42) "從羽能, 能亦聲"이 되어도 이는 회의구조가 아니라 형성구조로 보아야 한다. 물론 『설문』에서 사용된 亦聲字에 대해 이를 會意와 形聲 중간의 표현 방식으로 보는 이도 있기는 하나, 한자에서 소리부가 포함되었을 경우는 조건 없이 형성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會意와 形聲의 구분에 대해서는 蔡信發(2010) 137쪽, 亦聲字에 대해서는 蔡信發(2010), 156~157쪽 참조). 그것은 한자가 갖는 두 가지의 근본 목적, 즉 의미와 독음의 표시 중에서 합체구조(字에 해당함)에서 의미 표현만 실현한 것이 회의이고(독체자의 경우는 상형과 지사), 이 둘을 다 실현한 것이 형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음요소가 포함되었으면 형성, 그렇지 못하면 회의로 보아야 한다.

볼 때, 원래의 능(能)에서 '곰에서 탄생한 인류'라는 특수한 의미를 표상하기 위해 새로운 의미부 우(羽)를 더하여 분화한 "從羽能聲"의 형성구조로 된 분별자(分別字)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소리부가 일반적으로 의미 결정에도 관여함을 고려할 때[43], 소리부로 변한 능(能)이 원래 의미에 직접 관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일(𦍒)의 창제의미

출토문헌에서 일(𦍒)이 일(一)로 치환된다고 했는데, 일(一)은 한자에서 매우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글자이다. 단순한 숫자 '일'에서부터 만물을 생성하는 원기(元氣)는 물론 동양에서 최고의 자치라 할 도(道)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서구의 '일자(The One)'에 해당하는 숭고한 개념이고 로고스(logos) 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44] 또 "옛날에 일(一)을 체득한 자들을 보면, 하늘은 일(一)을 얻으매 맑아졌고, 땅은 일(一)을 얻으매 안정되었고, 신은 일(一)을 얻으매 영험해졌고, 골짜기는 일(一)을 얻으매 가득 차게 되었고, 만물은 일(一)을 얻으매 생명을 갖게 되었고, 왕공제후는 일(一)을 얻으매 천하가 바로잡히게 되었다.(昔之得一者, 天得一以淸, 地得一以寧, 神得一以靈, 谷得一以盈, 萬物得一以生, 候王得一以爲天一正.)"(『노자』 제39장)라는 말처럼 일(一)은

43) 소리부가 의미의 결정에 관여한다는 이론은 송나라 때의 우문설이 대표적이지만 실증적으로 상세히 논증하여 더욱 체계적인 이론으로 구축한 것은 단옥재라 할 수 있다. 단옥재는 『說文注』에서 "凡從皮聲皆有分析之義"(皮가 소리부인 경우는 모두 분리하다는 의미를 가진다)(詖의 주석)나 "凡從甬聲之字, 皆有興起之義'(甬을 소리부로 삼는 글자들은 모두 흥기하다는 뜻을 가진다)(甬의 주석)에서처럼 '凡從某聲皆有某義'라는 학설을 주창하여 소리부의 의미표시 기능에 대해 큰 진전을 이루었다. 물론 모든 소리부가 그런 것은 아니며 절대화할 수도 없지만, 이후 魯實先의 '形聲必兼會意'나 黃永武의 『形聲多兼會意考』를 비롯해 沈兼士의 『右文說在訓詁學上之沿革及其推闡』 등의 연구를 거치면서 소리부의 의미표시 기능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다.

44) 河永三(2022), 25쪽.

UNIVERSITY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자리하도록 하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신비하고 신통한 존재이자 만물 법도의 근본 그 자체였다. 하지만 해서 일(一)이 이렇게 숭고한 의미를 가졌고 또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되었던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일(一)의 어원을 분석해야 하겠지만, 일(一)은 단순한 물체 하나를 그린 글자여서 이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행히도 진나라 계열 문자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일(一)의 이체자인 일(壹)이 존재한다. 일(壹)은 형체가 복잡하고 의미 있는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져 일(壹)의 표상근거와 창제원리로부터 일(䨻)이 일(一)과 통용될 수 있었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설문』에서 일(壹)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 일(壹): 전일하다는 뜻이다. 호(壺)가 의미부이고 길(吉)이 소리부이다. (專壹也, 从壺吉聲.)(제10권 하)

일(壹)에서 호(壺)가 의미부로 기능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리부라고 한 길(吉)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데, 단옥재(段玉裁)는 "호(壺)와 길(吉)로 구성되었는데, 길(吉)은 소리부도 겸한다.(從壺吉, 吉亦聲)"라고 하여, 길(吉)을 의미부 겸 소리부로 보았다. 그렇다면 길(吉)은 단순히 표음 기능을 넘어서 의미의 결정에도 관여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사실 길(吉)의 어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집 앞에 세워진 남성 조형물을 그려, 생명의 잉태를 상징한다.[45] 또 『설문』에서 호(壺)부수에 귀속되고 일(壹)자 앞에 배열된 운(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설한바 있다.

> 운(壼): 기운이 왕성하게 모여 있는 모습을 말한다. 흉(凶)과 호(壺)가 의미부이다. (기운이 호리병 안에서) 흩어지지 못해 왕성한 모습이다. 『주역』에서 '천지의

45) 郭沫若, 「釋祖妣」(『甲骨文字研究』), 10b~11b 참조. 馬叙倫은 『說文解字六書所證』(권3)에서 안녕이나 길상을 빌기 위해 집 앞에 세워둔 상징물로 해석했는데, 郭沫若의 해설과 맥을 같이 한다(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古文字詁林』 제2책, 85~86쪽 재인용). 李實(1997)도 吉의 윗부분인 士가 남성생식기의 모습을 그렸으며, 이는 원시생식 숭배의 흔적이라고 했다.(「釋士」, 539쪽) 남성 성기를 그려 조상 숭배를 반영한 祖도 이러한 전통과 관련되어 보인다.

원기가 왕성하게 모여 있도다.'라고 하였다.(壹, 壹壹. 從凶, 從壺. 不得渫, 凶也. 『易』曰: 天地壹壹.)(제10권 하, 壺部)

이렇게 볼 때, '호(壺)와 흉(凶)'으로 구성되어 '호(壺)와 길(吉)'로 구성된 일(壹)과 자형 상으로 짝을 이루는 운(壹)을 풀이하면서 일운(壹壹)을 말한다고 했는데, 일운(壹壹)은 '만물이 생성하기 직전의 음양의 기운이 한데 응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일운(壹壹)은 분리되어 사용된 적이 없어 연면어(聯綿詞)일 가능성이 매우 큼을 고려하면, 일(壹)과 운(壹)은 같은 뜻이라 할 수 있으며[46], 이로부터 일(壹)에 '전일하다' 즉 '마음을 한데 모으다'는 뜻이 담겼다고 할 수 있다.[47] 그리고 일(壹)은 그 핵심 의미가 호(壺)에서 왔고, 호리병을 뜻하는 호(壺)는 조롱박이 그 원형이며, 조롱박은 중국문화에서 특수한 상징을 갖고 있다. 조롱박은 여러 소수민족의 탄생신화에서 그들의 탄생 근거가 되었고, 이들 신화는 지금도 조롱박 숭배라는 민속으로 해당 민족의 사회에 남아 있다.[48] 이는 문명화의 진행이 빨랐던 한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경』을 비롯한 여러 문헌의 상징[49], 대홍수 시절 피난 도구로서의 박[50], 복희와 여와의 신화와 교미

---

46) 이 때문에 段玉裁도 "허신은 壹을 두고 '기운이 갇혀 나가지 못하다'라고 풀이한 것은 원기가 한데 뒤엉키고 길과 흉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이들 글자는 吉과 凶이 각각 壺 속에 든 회의자들이다. 이 두 글자를 결합하면 쌍성첩운이 되는데 사실은 두 글자가 합쳐진 한 글자이다.(許釋之曰不得渫也者, 謂元氣渾然, 吉凶未分, 故其字从吉凶在壺中會意. 合二字爲雙聲疊韵, 實合二字爲一字.)"라고 말한 바 있다. 『설문해자주』 '壹'의 해설 참조.

47) 壹壹은 각기 壺가 의미부이고 吉과 凶이 소리부인데, 吉과 凶의 어원을 고려할 때, 吉은 남성 생식 숭배를, 凶은 영혼의 육체 분리를 위한 칼집을 그려, 모두 생명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 이들의 의미지향에 대해서는 이미 논증한바 있으므로, 河永三(2011, 266~274쪽)을 참조하면 된다. 게다가 壹의 또 다른 이체자인 (『古文四聲韻』 入聲 質韻)은 吉 대신에 死가 들었는데, 死 역시 생명과 관련 있다.

48) 상세한 예시는 河永三(2011)의 제7장 252~309쪽 참조.

49) 周 민족의 탄생 역사를 노래한 「大雅・緜」에서 '길게 뻗은 외 덩굴이여! 백성들을 처음 낳으셨네.(綿綿瓜瓞, 民之初生.)'라고 했다.

50) 聞一多의 『신화와 시』에 등장하는 49종과 陶陽鍾의 『中國創世神話』에 출현하는 17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66종을 분석한 결과 대홍수 신화에서 동원된 피난 도구와 방식을 다음의 몇 가지로 귀납 정리할 수 있었다. 결과에 의하면, 피난도구로 동원된 것은, (1)호리병박(葫蘆) 37종: 호리병박 24종, 박(瓜) 13종, (2)호리병박의 변형 20종: 북(鼓) 7종, 단지(麇) 1종, 통(桶)(상자 포함) 6종, 배(舟船) 5종, 가마솥(鑊) 1종, (3)기타 3종: 돌사자(石獅子) 1종, 기타(하늘로 올라감) 2종, (4)미 언급 6종 등이다. 이들 신화

www.kci.go.kr

(交尾), '파과(破瓜)', 합근례(合巹禮)의 전통 등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일(壹)은 '조롱박에서 인류가 탄생하였다'는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의 인류탄생 신화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신화는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에게서 확인되는 조롱박 숭배 습속과 '인면호(人面壺)'로 대표되는 고고학적 유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51]

뿐만 아니라, 호리병박에서 인류가 탄생했다는 인류창제신화를 담은 일(壹)은 다른 지역의 유사 모델과도 비교된다. 예를 들어, 섬서성 서안 반파(半坡) 앙소(仰韶) 문화 유적지에서 출토된 '홍도인두호(紅陶人頭壺)'나 감숙성 진안현(秦安縣) 앙소문화 유적지에서 출토된 '인두기구채도병(人頭器口彩陶甁)'을 비롯해 청해성 악도현(樂都縣) 유만(柳灣)의 신석기 시대 앙소문화 후기 마가요(馬家窯) 유형 유적지에서 출토된 '채도호육체인상도호(彩陶壺肉體人像陶壺)' 등은 호리병에 사람얼굴이 결합되어, '호리병에서 인류가 탄생'했다는 신화의 직접적 반영으로 볼 수 있다.[52] 또 서남부 운남성 와(佤)족자치주의 창원(滄源) 암각화에서는 와족이 동굴에서 나왔음을 그림으로 그렸으며, 와족어에서 동굴과 호리병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 유적지를 '사강리(司崗里)'라 부르는데, '사강(司崗)'은 호리병박(葫蘆=崖洞)을, '리(里)'는 나오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강리(司崗里)'는 와족이 여기서, 또 호리병박(葫蘆)에서 나왔다는 뜻이다.[53] 이는 일(壹)의 창제 의미와 다름 아니다. 나아가 중국 동부 해안 절강성 연운항(連雲港)의 암각화에 보이는 '풀에서 핀 꽃이 사람 얼굴을 한 모습'(人面草, 人面花), 상대 후기 유적지인 하남성 은허(殷墟)의 조두인신상(鳥頭人身像), 사천성 삼성퇴(三星堆)의 인두조신상(人頭鳥身像) 등도 '꽃'이나 '새'를 '호리병'으로 치환하면 '호리병박 탄생' 신화와 다름 아닌데, 그것은 중국의 남서부, 서북부, 동부 해안, 동부 내륙, 서부 등 지역적 차이에 따라 그들이 숭상했던 토템의 차이일 뿐이라 볼 수 있다.

중 호리병박(37종)과 호리병의 변형(20종)을 합하면 전체의 86.36%를 차지하고 있다. 河永三(2011), 280~283쪽 참조.

51) 이의 상세한 논증은 河永三(2011)의 제7장 252~309쪽 참조.

52) 출토 인면호의 현황과 상징 및 그 문화성의 논증에 대해서는 河永三(2021) 참조.

53) 河永三(2022), 37쪽 참조.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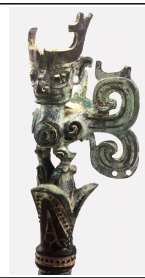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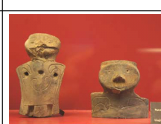
이러한 반영은 이상의 고고학적 유물뿐 아니라 한자나 관련 어휘 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예컨대, 중국을 상징하는 화(華)는 '꽃이 화사하게 핀 모습'을 그렸고, 절대 지배자를 뜻하는 제(帝)는 '씨방이 달린 꽃대'를 그렸으며, '꽃봉오리'를 뜻하는 영(英)은 글자 그대로 '식물의 핵심 부위'를 말하는데, 이들은 모두 식물 숭배, 곡물 숭배, 꽃 토템과 관련 있으며, 이의 원형적 상징이 식물에서 피어난 꽃이 사람 모습을 한 연운항(連雲港) 암각화라 할 수 있다.[54] 또 와족(佤族)의 언어에서 사강(司崗)은 '호리병박'를 뜻하기도 하고 암벽의 동굴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들 민족이 탄생한 신화를 그려 놓은 암각화가 있는 곳을 사강리(司崗里)라고 하였으며, 그것은 그들이 바로 '호리병박에서 나왔다'는 의미를 그렸다고 앞에서 말한 바 있다. 그래서 사강리(司崗里)는 바로 '최초의 길'이자 '인류의 발상지'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창원현(滄源縣)을 옛날에는 '호로국(葫蘆國)' 즉 '호리병박 나라'라고 불렀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55]

나아가 『시경・상송(商頌)』의 「현조(玄鳥)」에서 노래한 '하늘이 제비에게 명하여, 내려와 상나라 조상을 낳게 하고, 광대한 은나라 땅을 다스리게 하셨네.(天命玄鳥, 降而生商, 宅殷土芒芒.)'나 "은나라의 설은 간적이 그 어미인데, 유융씨의 딸이고, 제곡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 세 사람이 목욕을 하러 갔다가 현조가 떨어트린 알을 보았는데, 간적이 그것을 삼키고서는 임신이 되어 설을 낳았다.(殷契, 母曰簡狄, 有娀氏之女. 爲帝嚳次妃. 三人行浴, 見玄鳥墮其卵, 簡狄取呑之, 因孕生契.)"(『史記・殷本紀』)는 것 등은 상(商) 민족의 대표적 탄생 설화이다. 새에서 상 민족이 탄생했다는 이러한 신화의 반영이 은허(殷墟)에서 출토된 조두인신상(鳥頭人身像)이며, 이는 갑골문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어 「현조부호(玄鳥婦壺)」의 명문에 등장하는 '현조부(玄鳥婦)'와 『은허화원장동지갑골문(殷墟花園莊東地甲骨文)』에서 등장하는 '현조(玄鳥)'를 비롯해, '상고조(商高祖)'로 불리는 왕해(王亥)를 지칭하는 (『합』 3691), (『합』 30448, 32088), (『합』 34294)(𩰫, 隻) 등과 같이 해(亥)에다 조(鳥)가 더해진 모습으로 등장하

54) 河永三(2011), 304~305쪽.
55) 河永三(2022), 37쪽.

www.kci.go.kr

는 것 등은 새를 토템으로 삼았던 상 민족의 탄생신화를 직접적으로 문자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56] 또 새로 출토된 삼성퇴(三星堆) 유적지의 인두조신상(人頭鳥身像) 등도 이러한 전통의 다른 반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6월 중국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삼성퇴 제3호~제8호 갱에서 새로 발견된 대량의 유물이 현장 중계로 공개되었으며[57], "삼성퇴 신발견 2022"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제7호 갱에서 출토된 인두조신상(人頭鳥身像)은 그 예술성은 물론 풍부한 상징성으로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의 상징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이상의 모델에 근거하고 또 삼성퇴에서 새를 주제로 한 다양한 유물이 대거 출토되었음을 볼 때 이는 '새를 토템으로 하던 그들의 탄생신화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①紅山文化 발견 여신상.(牛河梁女神廟).[58]	③앙소문화 유적지의 「紅陶人頭壺」[59]	⑤雲南滄源司崗里와 崖刻畫(葫蘆洞)	⑦伏羲女媧圖[60]	⑨三星堆 2號墓 출토 人頭鳥身像[61]
				
②遼寧 朝陽 德輔博物館 소장 '熊陶尊'[62]	④拉祜族의 葫蘆崇拜	⑥彝族族的中藥店(昆明, 雲南)	⑧殷墟出土'陶鴞身人面像'(殷墟博物苑)[63]	⑩강소성 연운항 장군애 암각화

56) 于省吾(1959), 60~69쪽.

57) https://tv.cctv.com/2021/03/20/VIDARC1LJCAxSNL7km2vNxLj210320.shtml (2022.10.19.10:46 검색)

58) 중국 최초의 여신상이다. 牛河梁 女神廟 유적지는 紅山文化 유적에 속하며 遼寧省 서부의 淩源市와 建平縣 경계 지역에 자리한 牛河梁에 있다. 1983년 발굴되었으며, 절대 연대는

www.kci.go.kr

이렇게 볼 때, 일(一)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인류를 포함한 모든 만물의 시원을 상징한다. 그것이 일(一)에 원기이자 도(道)라는 의미까지 담게 하였던 것이다. 특히 '호리병박에서 윤리가 탄생했다'는 신화와 원시 시대의 기억을 반영한 일(壹)이 진나라 계열 문자에서부터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똑 같은 원리로, 갑골문에서 왕해(王亥)를 지칭하는 해(隻)에 새(隹)가 더해졌고 은허유적지에서 발견된 인면조(人面鳥)는 '새에서 인류가 탄생했음'을 반영했고, 화(華), 제(帝), 영(英) 등의 한자와 연운항의 암각화에 그려진 인면초(人面草)는 '식물에서 인류가 탄생했다'는 대전통 시대의 신화적 무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64]

그렇다면 우(羽)와 곰(能)이 결합하여 '날개 달린 곰'을 형상한 일(翼)도 같은 이유에서 '곰에서 인류가 탄생했다'는 신화적 사유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곰에서 인류가 탄생했다'는 인류탄생 신화는 홍산 문화로 대표되는 동북지역에서 발원한 전통이며, 이는 중국의 경우 동이족은 물론 초(楚)나라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었고[65], 진(秦)나라의 성(姓)인 영(嬴)도 여(女)

B.C.3630년쯤으로 추정한다.(바이두백과, 牛河梁女神廟遺址)(2022,10.19.10:47검색)

59) 1953년 陝西省 洛南縣 출토, 높이 23㎝, 西安 半坡박물관 소장.

60) 오타니 탐험대가 吐魯番 아스타나에서 수집한 작품. 189x79㎝, 韓國國立中央圖書館所藏.

61) 三星堆博物館소장. 높이 12cm. https://baike.baidu.com/item/青銅人首鳥身像/2316950 (2022,10.19.10:49 검색) 1986년 삼성퇴 제2제사갱 출토.

62) 사진: 『光明日報』. 2016년 遼寧省 朝陽市 德輔博物館에서 소장했고, 2017년 8월 郭大順이 이렇게 이름 붙이고 紅山文化시기의 것으로 확정했다. 현재 중국 국가 1급 유물로 지정되어 있다.

63) 『詩經・商頌・玄鳥』에서 '天命玄鳥, 降而生商.'라고 노래했고, 鄭玄은 이에 대해 이렇게 주석했다. '天使鳦下而生商者, 謂鳦遺卵, 娀氏之女簡狄, 吞之而生契.'

64) 대전통 시대와 소전통 시대는 레드 필드(Robert Redfield, 1897~1958)의 개념으로, *The Little Community*(1955)와 *Peasant Society and Culture*(1956)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문자가 없던 무문자 시대를 대전통 시대, 문자의 기록이 존재하는 역시시대를 소전통 시대로 활용한 것은 葉舒憲(2019)에 의해서이다.

65) 『史記・楚世家』에 의하면, 춘추전국 시대 楚나라 국왕의 이름을 보면 제1대 鬻熊에서부터 마지막 제47대 後懷王 熊心까지 총 47명의 이름에 모두 곰을 뜻하는 熊이 들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鬻熊—(2)熊麗—(3)熊狂—(4)熊繹—(5)熊艾—(6)熊黜—(7)熊勝—(8)熊楊—(9)熊渠—(10)熊摯—(11)熊延—(12)熊勇—(13)熊嚴—(14)熊霜—(15)熊徇—(16)熊咢—(17)熊儀—(18)熊坎—(19)熊眴—(20)熊通—(21)熊貲—(22)熊艱—(23)熊惲—(24)熊商臣—(25)熊侶—(26)熊審—(27)熊招—(28)熊員—(29)熊圉—(30)熊比—(31)熊居—(32)熊珍—(33)熊章—(34)熊中—(35)熊当—(36)熊疑—(37)熊臧—

와 '곰'을 그린 영(羸)으로 구성되어, 곰 숭배 사상과 모계 중심의 역사적 전통을 반영하였다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동북 지역의 에벤키(鄂温克, Evenki, Tungus)족이나 일본 북부의 아이누(Ainu)족들의 '곰' 숭배와도 직접 연계된다. 예를 들어 에벤키(퉁구스)인들은 "곰을 호모뜨리(homottiri)라 부르고 조상신을 호모꼬르(homokkor), 영혼을 호모겐(homogen)이라 불러" 셋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그러기에 매우 경건하게 삼았음을 알 수 있는데"[66], 이는 "곰이 자신의 조상신이자 영혼이라 여기는 수조(獸祖)신화에서 비롯한다."[67]

특히 한국의 건국신화인 단군(檀君)신화를 곰에서 인간으로 변신한 웅녀(熊女)가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과 결혼하여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왕검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신화와 곰 숭배 토템은 일본까지도 그 범위를 넓혀 나갔다. 예컨대, 아이누 족들에게서도 곰 축제와 제의가 성행했는데, 그들의 말에서 웅신(熊神)을 뜻하는 'kamui'는 일본어의 'Kami'(神), 한국어의 '곰'(熊)과 어원을 같이 하는데, '곰을 신'으로 여겼음을 잘 보여준다. 또 일본어에 많이 남아 있는 '곰의 변형으로 보이는 '구마' 계열 지명들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68] 특히 한국어의 '어머니'도 '옴마, 오메, 오매, 어마니' 등의 방언자료로 유추해 볼 때 '곰'에서 변했으며, 이는 단군의 어머니인 '곰(고마)'와 연계된다.[69] 이는 한민족을 부르던 맥(貊, 貉)의 어원도 이와 관련되어 있으며, '곰(熊)'(『訓蒙字會』)과 같은 어원을 가지는 '고마'가 『신증유합(新增類合)』에서 경(敬), 건(虔), 흠(欽)으로 풀이되어 '공경함'과 동일시된다는 것은 '곰에 대한 숭배'의 언어적 표현이라 할

(38)熊良夫—(39)熊商—(40)熊槐—(41)熊横—(42)熊元—(43)熊悍—(44)熊猶—(45)熊負芻—(46)熊启—(47)熊心" 초나라 왕의 이름에 모두 熊이 들었다는 것은 초나라가 '곰'을 토템으로 하던 전통을 가졌음을 잘 보여준다. 다만, 전통 문헌에서의 '熊'이 출토 문헌에서는 '酓'으로 기재되기도 했고, 그래서 초나라의 선조를 '芈姓熊氏'가 아닌 '嬭姓酓氏'로 보기도 한다. 초나라의 선조가 처음부터 酓氏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66) 정호완(1995b), 144쪽.

67) 정호완(1995a), 1쪽.

68) 이에 대해서는 최정숙・정호완(2021), 「곰 토템과 언어문화의 유연성 연구」, 『문화와 융합』(제43권1호, 통권77집)에서 상세히 논증한 바 있다.

69) 정호완(1995a), 7~8쪽.

www.kci.go.kr

수 있다.70)

이렇게 볼 때, 일(䨻) 역시 동북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곰 토템과 이를 반영한 신화, 지명을 포함한 언어학 자료를 비롯해 고고유적 및 유물 등을 통해서도 상호 논증이 가능하다.71)

이상의 가설과 논증을 통해 중국 각 지역에 등장하는 탄생신화와 문자 자료 등의 관계를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72)

지역	문화유형/지점	기물 유형	토템	관련 한자
동북 및 동이 지역	홍산문화	여신상, 웅도준(熊陶尊) 웅두인신상(熊頭人身像)	곰(羽熊, 天熊, 飛熊)	일(䨻=一, 壹)
황하 중상류	앙소문화	인두호(人頭壺)	(호리병)박	일(壹), 운(壺)
황하 하류	상나라 은허유적	인두조신상(人頭鳥身像)	새(제비)	현조(玄鳥), 을(乭) 왕해(王亥)〔隻〕
장강 상류	삼성퇴유적	인두조신상(人頭鳥身像)(2호묘) 조두인신상(鳥頭人身像)(7호묘)	새(봉황?)	*
회화 하류	연운항유적	인면초(人面草)	식물(곡식)	화(華), 제(帝), 영(英)

이렇게 해서 일(䨻)은 일(一)과 같고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만물의 탄생을 상징하는 일(壹)과 연계되어진다. 그래서 일(䨻)은 일(一)의 대용이자 '전일하다'는 의미의 일(壹)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볼 때, 일(一)의 핵심 의미가 숫자 '일'이라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을 담기 위해 특별히 만든 글자가 일(壹)이고, 일(壹)은 만물을 생성하는 원기가 혼동의 상태에서

70) 정호완(1995a), 4쪽.
71) 동북아 지역에 분포한 곰 토템과 이를 반영한 신화, 지명을 포함한 언어학 자료를 비롯해 고고유적 및 유물들을 통한 논증에 대해서는 따로 상세히 논증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72) 河永三(2022), 38쪽 참조.

www.kci.go.kr

막 터져 나와 생성하려는 모습이 반영되었다. 이 때문에 『설문』에서 일(壹)의 의미를 '전일하다'라고 했는데, 이는 '온 힘과 정신을 오로지 하나로 모으다'는 의미이며, 『중용』에서 말하는 온 정성과 성심을 다하는 성(誠)에 다름 아니다.

4. 일(𦍒)의 용례분석

무한대학간백연구센터(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http://www.bsm.org.cn), 유지기(劉志基)(2013), 채려리(蔡麗利)(2010) 등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 출토된 '𦍒'의 용례는 「악군계절」에 2례(「舟節」과 「車節」), 『망산초간(望山楚簡)』에 2례, 『천성관복서간(天星觀卜筮簡)』에 7례, 『포산죽간(包山竹簡)』에 4례, 『신채죽간(新蔡竹簡)』에 5례, 『상박초죽서』에 2례, 『곽점초간』에 4례 등 총 26례가 확인된다. 여기에다 초나라 계통 문자는 아니지만 「중산왕착호(中山王𦍒壺)」까지 더하면 총 29례가 된다. 이들을 우선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악군계절(鄂君啓節)

01. '屯三舟爲一舿, 五十舿, 歲𦍒返.(「鄂君啓舟節」[73], 『殷周金文集成』, 121105) (배 3대를 합친 것을 1과라 하는데, 50과(즉 150대)를 사용할 수 있고, 만 1년이 되면 반환해야 한다.)[74]

02. '車五十乘, 歲𦍒(一)返.'(「鄂君啓車節」) (수레 50승을 사용할 수 있고, 만 1년이 되면 반환해야 한다.)

---

73) 달리 「噩君啟車節」이라 하기도 하며, 1957년 安徽省 壽縣 壽春鎮 花園村 丘家花園에서 출토되었다. 戰國中期의 것으로 추정되며, 길이 29.6cm, 너비 7.3cm, 두께 0.7cm이며, 총 144자(合文 4자)로 되었다. 현재 中國國家博物館에 소장되었다. (https://bronze.asdc.sinica.edu.tw/rubbing.php?12110)(2022.10.19.10:51검색)

74) 屯은 '모으다'는 뜻이고, 舿는 舸와 같아 '큰 배(大船)'를 말한다. 𦍒은 일반적으로 于省吾의 설을 따라 '가득차다(盈)'로 해석한다. '한 해가 가득 차다'는 '1년 만기'라는 의미와 같고, 이는 부절의 사용기간을 말한 것으로, 한 해가 다 차면, 즉 만 1년이 되면 반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www.kci.go.kr

〔2〕 상박초죽서(上博楚竹書)

03.「季庚子問於孔子」: '肥從有司之後, 羿不知民務之安在. (『上博楚竹書』 권5, 「季庚子問於孔子」 1』)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도 모르겠네요.)[75]

04. ……夫子曰: '智而比信, 斯人欲其〔智〕也 ; 貴而羿讓, 斯人欲其長貴也……〔3〕(P918)(『上博楚竹書』 권5, 「君子爲禮」 4+9』)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식이 많으면서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의 지식이 더욱 많아지길 바랄 것이고, 고귀하면서 한결 같이 겸손하다면 사람들은 그의 지위가 더욱 고귀해지길 바랄 것이다.)

05. '王就之曰: 夫彭徒羿(一)勞, 爲吾諡之.'[76](『上博楚竹書』 권8, 「王居」)(왕께서 나아가 말씀하셨다. 팽 땅의 사도가 한바탕 큰 수고를 하였기에 우리가 시호를 주었던 것이다.[77])

〔3〕 곽점초간(郭店楚簡)

06. '淑人君子, 其儀羿(一)也'. 能爲羿(一), 然後能爲君子, 君子愼其獨也. (『郭店楚簡・五行』 16) (〔『시경・曹風・鳲鳩』에서〕 '현명한 군자, 그 의태 한결 같네.' 라고 노래했는데, 능히 한결같아야만 군자가 될 수 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신중해야만 한다.)

07. 羿缺羿盈, 以忌(紀)為萬物經. (『郭店楚簡・太一生水』 7) (〔해와 달이 교대로〕 한번 기울고 한번 차기를 반복하면서 만물의 본원이 되어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된다.)[78]

---

75) 최남규(2016)는 "초문자에서 羿자는 一이나 抑자로 가차되어 쓰인다.……여기서의 羿은 抑의 의미인 '轉折'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로도 쓰인다."(314쪽, 주 21)라고 하여, '그러나'로 해석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羿不知'는 '一不知'로, 이를 굳이 一과 독음이 같은 抑을 가져와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보지 않고, '하나도 모르다' 즉 '전혀 모르겠다'는 의미의 강조부사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이는 一이 접속사로 쓰였다고 보는 또 다른 예인 「史蔺問於夫子」 제10간의 '羿(一)或'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㑹(始)又(有)民目(以)來, 未或能才(栽)立(粒)於堙(地)之上, 羿(一)或不免又(有)謂(滑)不(否)?"(……백성이 보리를 가지고서 만약에 땅 위에 씨앗을 뿌릴 수 없게 된다면, 백성들이 심한 혼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의 '羿(一)或'은 접속사가 분명하지만 접속사의속성은 或에서 부여되고 一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인다.

76) https://inscription.asdc.sinica.edu.tw/c_index.php에서는 能으로 예정함.

77) '상박초죽서'의 정리자(馬承源 등)에 의하면, 彭은 彭城을 말한다고 했는데, "彭徒"는 彭 땅의 司徒로 徒役의 일을 책임졌던 사람을 말한다. 彭城은 春秋晚期 楚國 東北 邊邑이었는데……彭城은 마침 泗水 연변의 교통요지였다. 그래서 彭徒는 彭城에 주둔하던 楚나라 군대의 司徒였다 하겠다. 韓虎泰(2018) 「春秋"疆吏"二題」, 『中國古代史』 2018년 제5기. 28쪽

www.kci.go.kr

08. 福而貧賤, 則民谷(欲)其福之大也；貴而䍃讓, 則民谷(欲)欲其貴之上也.(『郭店楚簡・成之聞之』17~18』)(부유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부를 나누어준다면 백성들은 그의 재산이 더욱 많아지를 바랄 것이며, 고귀하면서 한결 같이 겸양하다면 백성들은 그의 지위가 더욱 귀하고 높아지기를 바랄 것이다.)[79]

09. 䍃(一)言之善, 足以終世.(『郭店楚簡・語叢四』, 25+3)(한마디 선한 말이라도 종세토록 안락하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4〕 청화간(淸華簡)

10. '湯或(又)問于小臣曰: 人赫得以生? 何多以長? 孰少而老? 固猶是人, 而䍃(一)惡䍃(一)好?(『淸華簡』권5,「湯在啻門」)[80](탕 임금께서 다시 소신에게 다음처럼 하문하셨다. 사람이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오래 사는가? 어찌하여 젊은데도 늙는가? 진실로 같은 사람인데도, (어찌하여) 한쪽은 나쁘고 한쪽은 좋단 말인가?)

〔5〕 포산죽간(包山竹簡)

11. 䍃禱於邵王戠(特)牛. 饋之; 䍃禱文坪夜君・郜公子晉(春)・司馬子音・蔡公子(家), 各戠(特)豢, 酉(酒)飤(食); 䍃禱於夫人戠(特)豬.(『包山』200』)(䍃禱를 邵王께 드리는데 戠牛를 쓰고 饋食의 방법을 사용할까요? 䍃禱를 文坪夜君과 郜公子春과 司馬子音과 蔡公家께 드리는데 각기 戠豢을 쓰고 酒食의 방법을 사용할까요? 䍃禱를 夫人께 드리는데 戠豬을 쓸까요?)

12. 䍃禱於邵王戠(特)牛, 饋之: 䍃禱於文坪(平)君・郜公子芚(春)・司馬子音・蔡公子(家), 各戠(特)豢, 酉(酒)飤(食)；夫人戠(特)豬.(『包山』 203~204)(䍃禱를 邵王께 드리는데 戠牛를 쓰고 饋食의 방법을 사용할까요? 䍃禱를 文坪夜君과 郜公子春과 司馬子音과 蔡公家께 드리는데 각기 戠豢을 쓰고 酒食의 방법을

---

78) 최남규(2016)는 䍃은 초 죽간에서 一이나 抑의 가차로 쓰이는데, 一자를 弌로 쓰기도 하였다고 하면서, 一이나 弌로 쓰지 않고 복잡한 형태의 䍃로 쓴 것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26쪽, 주 18)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도 一이나 弌을 䍃로 써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둘을 구분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一이나 弌이 가차자가 아니라 다른 함의가 내포된 의미로 쓰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79) 裘錫圭는 能으로 풀이했다.(최남규(2016), 401쪽, 주 47 참조.) 그러나 (21)의 "能爲䍃"의 예를 보면 能과 䍃이 동시에 출현하여 能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80) '淸華簡〔5〕' 중의 제5편으로, 戰國시기의 문헌이며, 湯이 啻門에서 少臣(즉 小臣 伊尹)과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전국시기 '伊尹學派'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湯在啻門」은 총 21매의 죽간으로 되었는데, 글자도 분명하고 내용도 완전한 편이다. 이는 湯임금이 小臣에게 옛날 先帝들의 훌륭한 말씀에 대해 하문한 데 대하여 成人, 成邦, 成地, 成天의 道에 대해 논술한 소신의 대답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의 天人觀을 잘 보여주고 있다.(바이두 백과, 淸華簡)(2022.10.19.10:53검색)

www.kci.go.kr

사용할까요? 翼禱를 夫人께 드리는데 戠豬을 쓸까요?

13. 翼禱於邵王特牛, 大臧饋之. 邵吉爲(位), 旣禱致福. (『包山』 205) (翼禱를 邵王께 드리는데 戠牛를 쓰고, 大臧 饋食의 방법을 사용할까요? 邵(佗)가 직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기도를 잘 마치면 복이 내릴까요?)

14. 翼禱於文坪(平)夜君・郜公子晉(春)・司馬子音・蔡公子(家), 各戠(特)豢, 饋之. 邵吉爲(位), 旣禱至(致)福. (『包山』 206』) 翼禱를 文坪夜君과 郜公子春과 司馬子音과 蔡公家께 드리는데 각기 戠豢을 쓰고 饋食의 방법을 사용할까요? 邵(佗)가 직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기도를 잘 마치면 복이 내릴까요?)

〔6〕 망산죽간(望山竹簡)

15. 翼禱先君東公戠牛, 饋□.(『望山M1・I12』) (翼禱를 先君東公에게 드리는데 戠牛를 쓰고 饋食의 방법을 사용할까요?)

16. 翼禱王孫梟(巢)塚豕. (『望山M1・I19』) (翼禱를 王孫梟에게 드리는데 塚豕(거세한 돼지)를 쓸까요?)

〔7〕 천성산초간(天星觀楚簡)[81]

17. 翼禱大禡戠牛(『天星觀卜筮簡』)〔2〕(P285) (翼禱를 大禡에게 드리는데 戠牛를 쓸까요?)

18. 翼禱祇戠牛(『天星觀卜筮簡』) (翼禱를祇에게 드리는데 戠牛를 쓸까요?)

19. 翼禱祇戠牛(『天星觀卜筮簡』) (翼禱를 祇에게 드리는데 戠牛를 쓸까요?)

20. 翼禱勞尚戠豢, 酒食.(『天星觀卜筮簡』) (翼禱를 勞尚에게 드리는데 戠豢를 쓸까요? 酒食으로 할까요?)

21. 翼禱西方全, 豬豕.(『天星觀卜筮簡』) (翼禱를 西方全에게 드리는데 豬豕를 쓸까요?)

22. 翼禱惠公戠豢, 肉饋.(『天星觀卜筮簡』) (翼禱를 惠公에게 드리는데 戠豢을 쓸까요? 고기를 饋食으로 할까요?)

23. 翼禱卓公訓(順)至惠公.(『天星觀卜筮簡』) (翼禱를 卓公順에게서부터 惠公에게 드릴까요?)

〔8〕 신채초간(新蔡楚簡)[82]

---

81) '天星觀楚簡'은 1978년 호북성 天星觀 제1호 묘에서 죽간으로, 卜筮祭禱와 遣策이 주된 내용이며, 楚나라의 封君制度, 封君葬制 및 潘氏家族의 역사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묘주는 番勝으로 무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작위는 초나라의 上卿이었고 관직은 令尹, 上柱國 반열에 올랐다. 기원전 340년 전후(楚 宣王 혹은 威王 시기)에 하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 죽간의 경우 대부분 잔편으로, 70여 매가 정리되었으나 나머지는 여전히 잔편으로 남아있다.(바이두백과, 天星觀楚簡)(2022.10.19.10:55검색)

82) '新蔡葛陵竹簡'이라고도 하는데, 기원전 340년 전후(전국시대 중기) 때의 유물이다. 이 죽

24. 以䨻禱大牢, 饋(『新蔡』甲三 136) (䨻禱를 드리는데 戠牛를 쓰고 饋食의 방법을 사용할까요?)

25. 疾䨻瘨䨻已.(『新蔡』甲一 22)(질병이 한편으로는 계속되고 한편으로는 그칠까요?)[83]

26. 疾䨻瘨䨻已. ⍰. (『新蔡』甲三 284』)(질병이 한편으로는 계속되고 한편으로는 그칠까요?)

27. 疾䨻⍰. 『新蔡』甲三 365』)(질병이 한편으로는 ……?)

28. 䨻已. (『新蔡』零 339』)(〔질병이〕 한편으로는 그칠까요?)

〔9〕 중산왕착호(中山王譽壺)

29. '曾亡(無)䨻(一)夫之救(救).'(壺四壁)[84]27. 「中山王譽方壺」(『殷周金文集成』, 9735, 전국초기)[85] (〔연나라의 옛날 임금인 외(徻)(혹은 噲)나 새 임금인 지(之)는 모두 예도와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순리를 거스름도 살피지 않아 나라가 망하고 몸을 망쳤다. 그래서〕 한 사람도 가서 구해주지 않았다.[86]

이들 용례에서 전인들의 연구처럼, 일(䨻)이 일(一)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일(壹)의 창제원리에서 보듯, 일(䨻)도 해당 민족의 탄생신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런 숭고한 원형의식을 문자 형식을 통해 표상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일(壹)은 단순한 숫자 '1'이 아니라 만물을 생성하는 원기이자 후세에서 말하는 도(道)의 개념으로까지 쓰이는 매우 숭고한 개념을 담게 되었듯, 일(䨻)도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䨻)이 일(一), 특히 일(壹)과 같은 함의를 가진 그런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면, 일(䨻)이 등장하는 자료들에서 전체 문맥상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다시 정밀하게

간은 1994년 8월 하남성 新蔡 葛陵故城 楚墓에서 발굴되었으며, 卜筮祭禱와 遣策이 주된 내용이다. 총 1500여 매에 이르며, 8000여자가 수록되었다. 이 죽간은 淮河 유역에서 출토되어 당시 초나라의 동부지역과 중심지역 간의 卜筮와 祭禱 등이 되고 있다.(바이두백과, 新蔡葛陵竹簡)(2022.10.19.10:58검색)

83) 陳偉(2004)는 瘨을 뒤에 나오는 已와 대응시켜 續으로 읽었다.

84) 戴家祥은 이를 "從鼠從一"의 구조인 [illegible]로 보았다.(劉志基(2013), 제1권, 5쪽.)

85) 1974~1978년 河北省 平山縣 上三汲鄉 上三汲村의 中山王譽墓에서 출토, 전국 후기 때의 유물로 추정된다. 총 447자(重文 2)의 명문이 실려 있으며, 높이 63cm, 최대 구경 35cm, 무게 28.72kg에 이르며, 현재 河北省文物研究所에 소장되어 있다.
(https://bronze.asdc.sinica.edu.tw/rubbing.php?09735)(2022.10.19.10:59검색)

86) "燕故君子噲, 新君子之, 不用禮義, 不辨逆順, 故邦亡身死, 曾無一夫之救."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우선 이들 용례를 사용된 의항 중심으로 다시 귀납해 보면 다음과 같다.[87]

① 숫자: 일, 하나, 한바탕, 한쪽: [07]䍃缺䍃盈; [09]䍃言之善; [29]曾亡(無)䍃(一)夫之救(救).' [03]䍃不知, [05]䍃(一)勞, [10]'䍃(一)惡䍃(一)好'

② 접속사: 한편으로 ~하고 한편으로 ~하다: [25~26]'疾䍃贗䍃已', [27]䍃□, [28]䍃已.

③ 동일하다: [06]其儀䍃(一)也'. '能爲䍃(一)'

④ 가득 차다. [01~02]'歲䍃(一)返', '歲䍃返'

⑤ 한결 같다: [04:08]'貴而䍃讓'

⑥ 곰 토템: [11~24]'䍃禱'

먼저, ①처럼 숫자로 쓰인 경우인데, 1~2의 경우 䍃은 단순한 숫자로 일(一)로 대체가 가능하다. (25) 의 '䍃缺䍃盈'은 '一缺一盈'이고, (26)의 '䍃言之善'도 '一言之善'으로[88], 모두 일(一)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 (27)의 '曾亡(無)䍃(一)夫之救(救).'에서 망(亡)은 무(無)와 같고, 일(䍃)은 일(一)과 같고[89], 구(救)는 구(救)와 같으니, "(연나라의 옛날 임금인 徻나 새 임금인 之는 모두 예도와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순리를 거스름도 살피지 않아 나라가 망하고 몸을 망쳤다. 그래서) 한 사람도 가서 구해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들 모두 일(一)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숫자'로 해석되며, 일(一)과 완전히 환치 가능하다.

다음으로 ②의 경우, 연결 접속사로 쓰여 '한편으로 ~하고 한편으로 ~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현대중국어의 선택 의문문처럼 대칭되는 두 개념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묻는 내용이 서로 대칭이기에, 그 중 하나만 가능하다. 예컨대 '疾䍃贗䍃已'는 질병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낫게 될 것인지를 물은

87) 一(壹)이 숫자, 道, 元氣, 一切 등의 실사적 의미 외에 허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①皆(모두), ②或(혹시), ③忽(갑자기), ④太(너무), ⑤既已(이미), ⑥乃(바로), ⑦則(바로), ⑧어기사 등의 용법이 있다고 했다.(裴學海, 1983, 213~217쪽 참조)

88) 『左傳』의 "一言而善", 『韓非子』의 "是以不言而善應, 不約而善增." 등이 그렇다

89) 鼠가 의미부이고 一이 소리부이며, 뜻은 '하나'라고 보았다. 劉祥(등)(2004), 196쪽.

www.kci.go.kr

것이다. 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병이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정도의 의미이다. 현대 한어에서도 '一邊~一邊~'의 형식이 존재한다.

셋째, ③의 경우는 '동일하다'는 뜻인데, 이는 숫자 '일'에서 파생한 의미이다. 예컨대, (4)의 '其儀䍙(一)也'. '能爲䍙(一)'이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24)의 '其儀䍙(一)也'와 '能爲䍙(一)'은 동일하다는 뜻이다.

넷째, ④의 경우는 '가득 차다'는 뜻인데, (1)~(2)의 '세일반(歲䍙返)'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우성오가 상세히 고증한 바 있다. 그는 일(䍙)을 영(贏)자로 보았는데(여기서는 貝가 생략된 모습으로 되었음), 금문에서는 영(贏)과 영(嬴)이 자주 통용되고, 또 영(贏)은 '여유가 있다(餘)'는 의미이고 영(嬴)은 성씨로 쓰였는데, 여기서 분화한 글자가 영(盈)이라고 하면서, 영(盈)은 '가득 차다(滿)'이라는 뜻이므로, '세일반(歲䍙返)'은 '세만반(歲滿返)'이 되어 "만 한 해가 되면 돌아오다"는 뜻으로 부절의 통행 유효기간이 1년임을 말한다고 했다.[90][91] 특히 『주례・지관・장절(掌節)』에 의하면, "모두 1년이 되면 부절을 반환한다(皆有期以返節)"라고 한 것으로 보아, 부절 사용의 유효 기간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진세휘(陳世輝)・탕여혜(湯餘惠)(2011)가 '1년 내에 한 번 돌아오다'고 한 것과도 일치한다.[92]

하지만 일(䍙)이 단순히 일(一)이라면 이는 '세일반(歲一返)'이 되는데, 세(歲)가 1년을 뜻하고, 일(一)과 같은 일(壹)이 '호리병 속에 기운이 가득 찬 모습'을 그렸음을 상기할 때, '1년 만기가 되면 반환하다'는 뜻이 된다. 특히 이 말의 앞에서 "屯三舟爲一舿(배 3대를 합친 것을 1舿라 한다)"라고 한 것이나 이어지는 「거절」에서 "屯十台堂一車(수레 10대를 합친 것을 1車라 한다)"라고 한 것 등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숫자에서 일(一)을 사용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일(䍙)은 분명 숫자로서의 일(一)과는 차이를 보여 '가득하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은 일(壹)에 더욱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

90) 于省吾(1963), 444쪽.

91) 姚漢源(1979)에서는 翼의 이체자이며 翼은 꽃과 같아서, '내년에 돌아오다'는 뜻이라고 했다. 『安徽省考古學會會刊』

92) 陳世輝・湯餘惠(2011), 257쪽.

www.kci.go.kr

그렇게 볼 때 일(一)은 '일반(一返)'의 결합, 즉 '한번 돌아오다'는 뜻이 아니라 '일 년이 되면' 즉 '한 해가 다 차면' 반환해야 한다는 뜻으로, '한 해가 다 찰 때까지' 즉 일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절」과 「거절」의 같은 내용 속에 기물의 수량을 나타낼 때에는 일(一)을 사용하고 있어, 일(一)과 일(翼)은 의미적으로는 같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구분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더구나 (25)의 '일결일영(翼缺翼盈)'의 경우 이는 '일결일영(一缺一盈)'로 보아야 함이 분명하고, 우성오(于省吾)처럼 해석하게 되면 일(翼)과 영(盈)이 연이어 나오므로 이는 성립 불가하여 영(贏)이나 영(嬴)의 후기자인 영(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는 숫자 일(一)이라기보다는 한 해가 '다 차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마침 일(壹)이 '호리병 속에 원기가 가득 차 있음'을 형상한 것임을 상기한다면 충분히 해석 가능한 일이다.

다섯째, ⑤의 경우처럼 '한결 같다'는 뜻인데, (22)와 (26)의 '貴而翼讓'이 이에 속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일(翼)을 읍(揖)으로 해석하여 '읍양(揖讓: 예를 다해 사양함)'으로 풀이했다. 물론 가능한 해석이다. 하지만 이 역시 마음을 다하다는 뜻의 일(一)이나 일(壹)로 해석해도 충분하다. 즉 그렇게 되면 '진심을 다하여 항상 자신을 낮추다'는 뜻이 되어 더욱 자연스럽다. 특히 전체적인 문장과 연결해 볼 때 문장 구조적인 면에서도 자연스럽다.

> '故君子不貴庶物, 而貴與(第16簡)民有同也. 智(知)而比卽(次), 故民谷(欲)其智之述(遂)也. 福(富)而貧(分)賤, 則民谷(欲)其(第17簡)福(富)之大也. **貴而翼讓**, 則民谷(欲)其貴之上也. 反此道也, 民必因此厚也(第18簡)以復之, 可不慎乎?'(第19簡 「成之聞之」)

즉 '귀이일양(貴而翼讓)'은 앞의 '지이비차(知而比次)'와 '부이빈천(富而貧賤)' 두 문구와 대구를 이루고 있다. '지(知)—부(富)—귀(貴)'가 대구를 이루고 '비차(比次)—분천(分賤)—일양(翼讓)'이 각각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지만, '비차(比次)—분천(分賤)—일양(翼讓)'은 각각 지(知), 부

www.kci.go.kr

(富), 귀(貴)와 연결되어 지식을 가졌거나 부유해졌거나 지위가 높아졌을 때 해야 할 일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비차(比次)와 빈천(貧賤)과 일양(翭讓)은 각기 '순서를 따를 줄 알고, 가난을 나눌 줄 알고, 항상 한결 같이 양보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은 지식이 더욱 드러나길 바라고, 부가 더욱 늘어나길 바라며, 고귀함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는 것이다. 지식이 늘어나고, 부가 축적되며,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질서를 알고, 부가 축적될수록 더욱 가난을 함께 하며,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겸양해야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⑥에서처럼, 일도(翭禱)로 쓰인 경우이다. (3)~(16)까지의 일도(翭禱)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제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예컨대, 오욱방(吳郁芳)(1996: 75)은 "『포산죽간』에서 이는 자주 보이는 제전의 하나인데, 제사의 대상이 묘주인 소타(昭佗)의 직계 선조 즉 그의 부모로부터 초나라 소왕(昭王)에 한정되고 있으며[93], 그 목적도 (재앙을 물리지기 위한 功解와는 달리) 복을 내려달라는 기복(祈福)에 있다." 라고 하였다.

특히 일도(翭禱)는 『포산죽간』[94]의 중요한 내용(53매가 이에 관한 내용임)인 '복제도(卜祭禱)' 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초나라 귀족들은 한 해가 시작될 때에는 한 해의 길흉에 대해, 질병이 있을 때에는 그 안위와 쾌유를 위해 점복

93) 吳郁芳(1992, 75쪽)의 연구에 의하면, 包山 제2호 묘의 주인인 昭佗의 부친은 昭舍(약 B.C.404~?, 자 子家, B.C.343년 蔡를 멸망시킨 후 蔡公이 됨), 조부는 昭○(약 B.C.434~?, 자 子音, 司馬의 직을 맡았으며, 초나라 肅王 원년에 피살된 것으로 추정), 증조부는 昭○(약 B.C.464~?, 자 子春, 초나라 簡王 때 圉縣의 현령을 맡음, 郜王의 직무를 맡음), 고조부는 昭文(약 B.C.494~B.C.433 이후, 자 子良, B.C.478년 이후에 平輿君이 됨), 시조는 熊珍(약 B.C.530~B.C.488, 초나라 昭公으로 B.C.515에 왕위에 오름)으로 재구한 바 있다.

94) '包山竹簡'은 1987년 1월 호북성 荊門市 十里鎮 王場村 包山崗의 包山 제2호 묘에서 발견된 죽간으로, 448매의 죽간(글자가 있는 죽간 278매)와 竹牘 1매로 구성되었으며, 총 12,626자가 수록되었고, 개별 자종은 1,605자에 이르며 31자의 合文이 포함되었다. 包山 제2호 묘의 묘주는 邵佗인데, 左尹의 관직을 맡았으며(周나라 제도에서 大夫에 해당함), 기원전 316년 楚曆으로 6월 25일 하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은 文書와 卜祭禱記錄과 遺策 등 3가지로 대별된다. 특히 卜祭禱 류의 기록은 당시의 점복제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바이두백과, 2022.10.29. 12:41 검색)

을 거행했는데 그에 관련된 것이다. 기록된 점복의 형식을 보면, 갑골문의 형식과 유사하게 전사(前辭), 명사(命辭), 점사(占辭), 도사(禱辭), 제2차 점사(占辭) 등 5가지로 나뉘는데, 이령(李零)은 전사(前辭), 명사(命辭), 점사(占辭)까지를 제1차 점복, 제2차 명사(命辭)[95]와 제2차 점사(占辭)를 제2차 점복으로 구분하여, 총 2차례에 걸쳐 점친 결과로 보았다.[96] 전사(前辭)에는 점복을 거행한 연월일과 점을 주관한 사람(貞人)과 점복의 대상이 포함되었고, 명사(命辭)에는 점을 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점사(占辭)에는 점을 친 결과 즉 점괘가 기록되었다. 제2차 명사(命辭)에서는 점치는 사람이 제1차 점복에서 얻은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물은 내용이며, 제2차 점사(占辭)는 제2차 명사(命辭)에서 얻은 해결방식(제사 방식과 대항 방식 등)이 합당한지에 대한 점괘가 포함되었다.

일도(翨禱)는 제2차 명사(命辭)에서 등장하는, 제2차 명사(命辭)에서 얻은 점괘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식의 하나로, 새제(賽祭)와 여제(𤔲祭)와 함께 『포산죽간』에서 등장하는 재앙을 물리칠 3가지 제의 방식(일종의 굿으로 추정됨)의 하나이다. 일도(翨禱), 새제(賽祭), 여제(𤔲祭)에는 누구를 위한 제의인지, 어떤 제물을 쓸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제물을 바칠 것인지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세 가지 제의 중 일도(翨禱)에서 등장하는 제의 대상은 주로 묘주였던 소타(邵佗)이거나 그의 직계 선조가 주를 이루며, 희생물도 특별히 길러진 소(特牛)를 사용하였고, 희생을 삶아서 올리는 궤식(饋食)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나머지 두 가지 제의 방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일도(翨禱), 새제(賽祭)(賽禱), 여제(𤔲祭) 등 3가지 제의의 명칭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쿠도 모토오(工藤元男, 1950~)는 "아마도 한 해의 길흉을 점친 점복(歲貞)과 질병의 쾌유를 위한 점복(疾病貞)에 참여한 점복관(貞人)이 자신

95) 彭浩는 이를 禱辭라 불렀다. 점괘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를 물었다는 점에서 李零은 제2차 命辭로 보았지만, 彭浩는 불길한 점괘나 불행 등에 대한 해결을 물었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기를 바랐다는 점에서 '禱辭'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96) 李零(1993), 「包山竹簡硏究(占卜類)」, 『中國典籍與文化硏究』(中華書局) 제1집.(工藤元男(2001), 79쪽 재인용).

www.kci.go.kr

의 집단 내에서 사용하던 제의 명칭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들 간에 본질적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했다.97) 하지만 이들이 당시 초나라 최고의 귀족이었던 소타(邵佗)의 집안에 불려와 주로 소타(邵佗) 자신은 물론 그 직계 선조들에 대한 점복을 주관했던 "점복관(貞人)이 자신의 집단 내에서 사용하던 제의 명칭"이라면, 초나라 계파에서도 '곰' 숭배 전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던 지파(支派) 계열의 가장 정통인 계파에서 행하던 제의방식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98)

이상의 예에서 보듯, 제사명칭으로 쓰인 일도(翼禱)를 제외하면, 전국문자에 등장하는 일(翼)을 일(一)로 환치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단순한 숫자로서의 일(一)이라기보다는 일(一)의 갖은자인 일(壹)이 표상하고 지향하는 구별적 의항인 '전일하다', '온 마음을 다하다', '전심전력하다', '성심성의를 다하다'는 의미가 더 깊게 스며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翼)이 단순한 일(一)의 의미를 넘어서 일(壹)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은 일(壹)이 갖는 신화적 상징이 일(翼)에도 그대로 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한자고고학적 전석

이상에서 필자는 전국(戰國)시기 초(楚)나라 계통 문자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우(羽)와 능(能)의 상하결합 구조로 된 일(翼)의 창제원리와 일(翼)이 일(一)과 같이 쓰인 연유를 일(一)의 갖은자인 일(壹)에서 찾고, 일(壹)이 '인류가 호리병박에서 탄생한' 신화의 반영이듯, 일(翼)도 '인류가 곰에서 탄생한' 신화의

97) 工藤元男(2001), 86쪽.

98) 물론 翼祭의 성격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宋華强(2006)은 翼이 一로 읽히는 데 주목하여, 고대 문헌에서 一은 乃와 통용되기에, 翼의 독음을 能으로 보았으며, 能은 烝과 통하여, 『이아·석천』 등 고대문헌에 등장하는 祀, 蒸, 嘗, 禴 등 계절에 따라 지내는 時祭를 말하며, 이는 登祭에서 왔다고 보았다.(1~3쪽 참조.)

www.kci.go.kr

직접적 반영이라고 보고서 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논증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翼)은 자형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능(能)에서 원래의미의 특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의미부 우(羽)를 더해 분화한 분별자(分別字)로, "從羽能聲"의 형성구조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翼)은 '날개 달린 곰'을 형상했고, 이는 곰 토템과 곰에서 탄생한 민족 탄생 신화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날개는 여러 문명에서 "태양에 속하며 신성과 영성을 나타내며, 또 날개가 있는 신의 자유로운 움직임, 가호를 내림, 두루 퍼져 있는 힘, 그 밖의 속세를 초월하는 힘, 피로함을 알지 못함, 편재(遍在), 공기, 바람, 자발적인 운동, 날아가는 시간, 사고의 비상(飛翔), 의지작용, 정령의 신, 자유, 승리, 신속함을 상징한다."[99] 이렇듯 날개는 하늘과 신성함의 상징이다.[100] 그래서 일(翼)은 의미적인 측면에서 일(壹)의 창제원리가 보여주듯, '곰에서 태어난 인류탄생' 신화의 직접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101] 이 때문에 일(翼)은 '호리병박에서 태어난 인류탄생'신화를 반영한 일(壹)과 글자 창제의 맥락을 같이 하며, '만물의 근원'을 뜻하는 일(一)과 같은 의미로 쓰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翼)은 일(壹)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일(一)과 통용되는, 의미와 독음이 같고 형체만 다른 글자이지, 독음이 같아서 빌려

99) 특히 중국에서 "날개달린 용은 하늘의 힘이며, 天馬는 날개를 가지며 陽에 속한다. 각각 날개가 하나뿐인 새인 比翼鳥는 파괴할 수 없는 결합, 충실, 한 쌍의 연인을 나타낸다." 진 쿠퍼(1994), 454쪽.

100) 이와 달리 羽를 '새 토템'의 상징으로 보아, 단군신화를 곰 토템 족이 새 토템 족의 결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예컨대 각저총 고구려 벽화의 '神壇樹圖', 장천 제1호분의 '곰과 신수' 그림, 요녕성 平崗에서 출토된 고구려 청동장식의 상징 등에 근거해 '날개'는 '새'의 상징이고 이를 삼족오로 대표되는 새 토템으로 연결시키며, 이는 한반도의 민족 원류와 관련된 韓族(새 토템)과 貊族(곰 토템)과 濊族(호랑이 토템) 등의 융합관계로 해석하기도 한다.(임재해, 2022, 참조) 그렇게 본다면 1977년 하북성 平山縣 三汲村 戰國시대 中山國王墓에서 출토된 금은으로 상감된 양쪽으로 날개 달린 호랑이 조형(錯金銀雙翼神獸)도 새 토템 족과 호랑이 토템 족 간의 결합의 상징으로 해석이 가능해 질 수 있다. 하지만 羽를 이러한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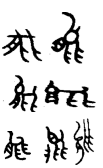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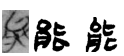
101) 葉舒憲(2018)은 殷墟 婦好墓에서 출토된 '石怪鳥'(괴이한 모양의 새 조형물)에 대해, 사실은 앉아 있는 곰의 모습에 머리는 새의 모양을 한 것으로 '熊鳥'라 부를 수 있는데, 이는 한나라 때의 조소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飛熊'으로 그 전통이 이어지며, 이들은 고대인들의 새와 곰 토템을 반영한 것이라 하였다.(174~176쪽) 이러한 熊鳥나 飛熊은 '새와 곰의 공통 숭배' 토템이 아니라 '날개 달린 곰'을 형상한 翼과 관련지어져 '곰 토템'의 잔흔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www.kci.go.kr

쓴 가차자가 아니다.

둘째, 일(䍃)이 '곰에서 태어난 인류탄생' 신화의 직접 반영이라는 것은 문자학적 자료뿐 아니라, 각종 지역에 남아 있는 곰 관련 지명과 초(楚) 왕의 세계(世系)에 남겨진 웅(熊)의 상징 등 문헌자료, 황제 헌원(軒轅) 유웅씨(有熊氏)로 대표되는 중국의 곰 토템 문화, 환웅과 웅녀로 대표되는 단군신화, 오로첸과 어웬키 족의 탄생 신화 및 투웅무(鬪熊舞) 등 인류학 자료는 물론, 홍산 문명에서 발견된 여신상과 곰을 형상한 웅도준(熊陶尊)과 웅도훈(熊陶塤)을 비롯해 웅두인신상(熊頭人身像) 등의 고고학적 자료 등으로도 이러한 점을 방증할 수 있다.

셋째, 일(䍃)이 갑골문은 물론 진나라 계통문자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초나라 죽간 문자에서 집중하여 등장한다는 것은 일(䍃)이 사용된 지리적 분포에 주목하게 한다. 즉 이들 글자는 전국문자의 오대 계열 중, 남방의 초나라 계열 문자에 속하며, 이후 진시황의 문자 통일 과정에서 사라진 지역 문자로 추정된다. 이를 반영한 일(䍃)의 자형 변천 과정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글자 (隷定)	갑골문		금문		전국문자		소전
能		→		→		→	
熊						→	
罷	102)					→	
䍃	(?)	→ (?)		↘		…〉	
罷 䍃							

→ 직접 전승, …〉 흡수 전승

www.kci.go.kr

넷째, 이렇게 볼 때, 일(翼)은 동이계열 문자로 추정되며, 중국 고대 문명의 삼대 계통이라 할 동이(東夷)문명, 화하(華夏)문명, 묘족(苗族)문명 등의 관계를 상상하게 한다는 점에서[103] 이후의 확장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구나 「중산왕착호」의 자료까지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곰 토템 문명의 전통은 홍산 문명에서 출발하여 서남쪽으로는 중산국(中山國)을 거쳐 진(秦)[104]과 초(楚)나라까지[105], 동남쪽으로는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이어지는 문명 루트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106]

다섯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문자의 해독과 문화적 해석을 문자학이나 언어학에 한정하지 않고, 문헌학적 자료, 인류학적 자료, 고고학적 자료를 상호 검증하는 사중증거법을 활용한 '한자고고학'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방법론 구축에 실천적 예증을 더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

102) 앞의 세 자형은 각기 『合』 309正甲, 『合』 309正乙, 『合』 19703正에 보이며, 갑골문에서는 能이 熊, 態, 罷와 통용된다고 했다.(劉釗・馮克堅(주편)(2019), 158쪽.) 마지막 자형은 徐中舒(주편)(1996), 제2책, 1837쪽에 보인다.

103) 예를 들어 徐旭生(2012)은 "정리된 자료를 비교검토해 본 결과 중국 상고시대 부족을 크게 華夏, 東夷, 苗蠻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 이들은 다시 여섯 지파로 세분해 볼 수 있다."(23쪽) 이의 구체적인 논증과 해석에 대해서는 제2장 "중국 상고시대의 삼대 부족집단", 93~326쪽 참조.

104) 秦族의 근원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산동성 제남 臨沂 부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기』에서는 상나라 말 中滴 때 서쪽 변경을 지키기 위해 西戎 지역으로 옮겨졌다고 했다. 「秦世家」 참조.

105) 楚族의 근원지에 대해서도 東來說, 西來說, 土著說(苗蠻), 北來說 등 여러 학설이 있다. 그 중 東來說과 北來說이 대표적인데, 東來說은 秦族과 楚族이 모두 高陽氏에게서 나왔고, 高陽氏는 東夷族 집단에 속했으며, 모두 동쪽의 海岱 지역(지금의 산동성 渤海에서 泰山 사이 지역)을 원 근거지로 삼았다. 또 北來說은 楚族이 北方의 中原지역에서 근원했다는 견해로 1930년대 傅斯年, 張蔭麟, 徐旭生 등이 이 설을 지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견된 河南 新蔡 葛陵楚簡과 清華簡의 「楚居」 등에 근거할 때 北來說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다. 黃瑩(2015), 46~52쪽 참조.

106) 홍산 문명에서 출발하여 동남쪽으로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이어지는 '곰 토템 문화'의 전통에 대해서는 따로 독립된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논문의 사전 작성과정에서 귀중한 의견과 자료를 주신 최남규(전북대), 문병순(경희대), 신아사(경성대) 교수님을 비롯해 투고 논문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參考文獻 >

徐旭生(2012),『중국전설시대와 민족형성』(상하), 조우연(역), 學古房.
임재해(2022),「고조선시대 곰과 범의 역사적 실체와 토템문화의 재인식」,「유라시아문화』 제6권.
정호완(1995a),「곰 신앙의 언어투영에 대하여」,『인문과학연구』(대구대) 제13집.
정호완(1995b),「곰 신앙의 언어표상」,『어문연구』 제26집.
진 쿠퍼(1994),『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역), 까치.
최남규(역주)(2016),『郭店楚墓竹簡』, 학고방.
최정숙・정호완(2021),「곰 토템과 언어문화의 유연성 연구」,『문화와 융합』(제43권 1호, 통권77집).
河永三(2011),『한자와 에크리튀르』, 아카넷.
河永三(2013),『한자의 세계: 기원에서 미래까지』, 신아사.
河永三(2014),『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河永三(2021), Significance of Rentouhu (人頭壺) Pottery Excavated from the Middle and Upper Reaches of the Yellow River as Cultural Symbols, and the Methodology of Chinese Character Archeolog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nese Character Studies* vol.4 no.1.
河永三(2022),「'한자고고학' 방법론 구축과 한자연구의 영토 확장」,『중국학』 제80집.
許愼(2022),『완역설문해자』(5책), 河永三(역주), 도서출판3.

季旭昇(2002),『說文新證』(上下), 臺灣藝文印書館.
工藤元男(2001),「包山竹簡卜筮祭禱簡'的構造與系統」, 陳偉(역),『人文論叢』 2001年.
郭沂(1998),「郭店楚簡『天降大常』(『成之聞之』)篇疏證」,『孔子研究』 1998年03期.
郭沫若(1958),「關於鄂君啓節的研究」,『文物參考資料』 1958年4期.
裘錫圭(1978),「史墻盤銘解釋」,『文物』 1978年03期.
裘錫圭(2013),「文字學概要」(修訂版), 商務印書館.
廖名春(1999),「郭店楚簡『成之聞之』・『唐虞之道』篇與『尙書』」,『中國史研究』 1999年03期.
廖名春(2001),「郭店簡『成之聞之』篇校釋箚記」,『古籍整理研究學刊』 2001年05期.
劉祥(등)(2004),『商周古文字讀本』, 語文出版社(제5판).
劉釗・馮克堅(주편)(2019),『甲骨文常用字字典』, 中華書局.

www.kci.go.kr

劉雲(2010),「釋"鷊"及相關諸字」, http://www.fdgwz.org.cn/Web/Show/1147
劉洪濤(2010),「讀上博竹簡箚記兩則」,『中國文字研究』 제13집.
李零(1993),「包山竹簡研究(占卜類)」,『中國典籍與文化研究』, 中華書局.
李實(1997),『甲骨文字叢考』, 甘肅人民出版社.
李學勤(2000),「試說郭店簡『成之聞之』兩章」,『煙台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0年04期.
裴學海(1983),『古書虛辭集釋』, 臺灣漢京文化事業有限公事.
徐文武(2019),「從新蔡楚簡探楚族的起源」,『中國楚辭學』(第十八輯)——2010年江蘇南通屈原與楚辭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徐中舒(주편)(1996),『甲骨文詁林』(4책), 中華書局.
顏世鉉(2000),「郭店楚簡散論(一)」,『郭店楚簡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湖北人民出版社.
晏昌貴(2007),「新蔡葛陵楚蔔筮簡中的繇辭解析」,『周易研究』, 2007年04期.
葉舒憲(2018),『熊圖騰: 中華祖先神話探源』(增訂本), 陝西師範大學出版社.
葉舒憲(2019),『玉石神話信仰與華夏精神』, 復旦大學出版社.
吳郁芳(1992),「包山二號墓墓主昭佗家譜考」,『江漢論壇』 1992년 제11기.
吳郁芳(1996),「包山楚簡卜禱簡牘釋讀」,『考古與文物』, 1996년 제2기.
王志平(2008),「䍙字的讀音及相關問題」,『古文字研究』 제27輯, 中華書局, 2008.9.
于省吾(1963),「鄂君啓節'考釋」,『考古』 1963年08期.
牛新房(2012),「說『成之聞之』中的'受次'及相關諸字」,『古文字研究』, 2012年.
袁金平(2007),『新蔡葛陵楚簡字詞研究』, 安徽大學中文系博士論文.
袁金平(2009),「釋新蔡葛陵楚簡中的"䍙"字」,『古代文明』 2009年04期.
周法高(등)(1982),『漢字古今音彙』(3쇄), 中文大學出版社.
陳世輝・湯餘惠(2011),『古文字學概要』, 福建人民出版社.
陳偉(2004),「讀新蔡簡札記(3)」, 簡帛研究網, 2004-01-30.
蔡麗利(2010),「楚文字'䍙'研究綜述」,『現代語文』(語言研究版), 2010年09期.
蔡信發(2010),『說文答問』, 臺灣學生書局.
韓虎泰(2018)「春秋'疆吏'二題」,『中國古代史』 2018년 제05기.
黃德寬(2005),「新蔡葛陵楚簡所見'穴熊'及相關問題」,『古籍研究』, 2005年02期.
黃瑩(2015),「出土文獻與楚族起源研究」,『中原文物』 2015年04期.

Baxter-Sagart Old Chinese reconstruction, https://en.wiktionary.org/wiki/Appendix:Baxter-Sagart_Old_Chinese_reconstruction

www.kci.go.kr

漢字古今音資料庫: https://xiaoxue.iis.sinica.edu.tw/ccr
東方語言學: http://eastling.org

< 中文摘要 >

釋'𦍒': 人類誕生神話的漢字考古學闡釋

戰國時期的楚文字裏集中出現的'𦍒'字, 其結構由羽和能組成是非常明確的, 但它的造字理據、本意和具體含義、讀音等, 至今還沒完全破讀。尤其它爲何與'一'字通用, 也沒有徹底分析。本論文對此字進行綜合分析, 得出以下幾點結論。

第一, '𦍒'應該看作和'一', 尤其'壹'音義相同的異體關系, 而不能看作'一'的假借字。其結構爲"從羽能聲"的形聲結構, 是由'能'加'羽'符而分化來的。

第二, '𦍒'的造字理據, 由'一'的大字'壹'可以尋找。正如'壹'字反映了'葫蘆生人'的人類誕生神話一樣, '𦍒'也反映了'熊生人類'的人類誕生神話。這一傳統和痕跡, 可以在各地各民族的人類學資料、考古資料和文獻記載中以多種方式得以證明。另外, 楚王的世系裏都含有熊字的傳統和秦國嬴姓的來源, 也與熊圖騰有關。

第三, 將'葫蘆生人'的原型意識表現在'一'(壹)字的形狀中, 使'一'(壹)成爲不僅僅是數字'一', 而是一切萬物的根源, 生成萬物的元氣, 可以達到最高地位的'道', 這相當於西方的'The One'。同樣理由, '𦍒'也獲得了相同含義。

第四, 這些神話意識不僅表現在'葫蘆'和'熊'崇拜, 還聯系與'鳥'圖騰有關的商代殷墟遺物、四川三星堆的新出遺物, 以及江蘇連雲港將軍崖岩畫之穀物崇拜等其他地區其他民族的圖騰。

第五, 這種證明可以稱爲'四證證據法', 它通過文字學材料、神話人類學資料、考古學資料、文獻學資料等相互驗證來證明。故這種研究方法可以稱爲'漢字考古學'。本篇論文通過'𦍒'的實證研究, 確保了該理論的另一理據, 提高了該研究方法的可行性。

關鍵詞: 𦍒, 壹, 能, 圖騰, 四重證據法, 漢字考古學

www.kci.go.kr

< Abstract >

Interpretation on '*Yī*'(𦍒): Literal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Myth of Human Birth

Ha, Youngsam

In the Chu characters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 structure of the word 𦍒, which is composed of Yu(羽) and Neng(能), is very clear, but its structural rationale, original meaning, specific meaning, pronunciation, etc. have not been completely deciphered. In particular, why it is commonly used with the word '一' has not been thoroughly analyzed. This paper comprehensively analyzes this word and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𦍒' should be regarded as a variant relationship with the same sound and meaning as '一', especially '壹', and should not be regarded as a borrowed word for '一'. Its structure is the phonological structure of "from the feather to the sound(從羽能聲)",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the '能' plus the '羽' symbol.

Second, the reason for the creation of the word '𦍒' can be found from the big character '壹' of '一'. Just as the character '一' reflects the myth of the birth of human beings of 'gourd born man', '𦍒' also reflects the myth of human birth of 'bear born man'. This tradition and traces can be proved in various ways in the anthropological data, archaeological data and documentary records of various ethnic groups in various places. In addition, the lineage of the King of Chu contains the tradition of the bear character and the origin of the Ying(嬴) surname of the Qin(秦) state, which is also related to the bear totem.

Third, express the prototype consciousness of "gourd begets people" in the shape of one(壹) character, making '一'(壹) not only the number "one", but the root of all things, generating the vitality of all things , can reach the highest status of "Tao(道)", which is equivalent to "The One" in the West. For the same reason, '𦍒' also acquires the same meaning.

Fourth, these mythological consciousnesses are not only manifested in the

www.kci.go.kr

worship of "gourd" and "bear", but also related to the relics of the Shang Dynasty Yin Ruins related to the "bird" totem, the new relics from Sanxingdui in Sichuan, and the worship of grains in the rock paintings of General Cliffs in Lianyungang, Jiangsu, etc. Totems of other ethnic groups in the region.

Fifth, this kind of proof can be called the "Four-proof Evidence Method", which is proved by mutual verification of philological materials, mythological anthropological materials, archaeological materials, and philological materials. Therefore, this research method can be called "Chinese character archaeology". Through the empirical study of '䍃', this paper ensures another rationale of the theory and improves the feasibility of the research method.

Key Words: 'yi'䍃, 'yi'(壹), 'neng'(能), totem, Four-proof Evidence Method, Chinese character archeology

투고일: 2022.11.07. / 심사일: 2022.11.24. ~ 2022.12.03. / 게재확정일: 2022.12.04.

www.kci.go.kr

www.kci.go.kr